

# 2024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 국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  
한글박물관|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현대미술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의  
전당|(재)예술경영지원센터|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문학번역원|국립극단|  
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국립현대무용단|서울예술단|(재)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한국문화원연합회|국립정동극장|(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일시 2024년10월18일(금)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 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 장애인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학번역원,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한국문화원연합회, 국립정동극장,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대하여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께 국정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인 21개 기관들은 예술작품 등의 수집·보존 및 전시, 도서 및 정보의 포괄적 수집·보존·정리 및 제공,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국민의 문화 향유 지원, 공연예술의 발전과 확산 및 인재 양성,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문화적 격차 해소, 노후 도서관 및 박물관 시설 개선,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처우 개선 문제,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자립 기반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관증인들의 증인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은 총 스물여덟 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4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합감사 등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김재홍

행정운영단장 김영수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김희섭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장상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한수

국립한글박물관

관장 김일환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황금숙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김성희

기획운영단장 박승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사무처장 송시경

예술의전당

사장 장형준  
경영본부장 이재석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장호  
기획경영본부장 김범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전수용  
경영기획본부장 이정근  
국립극단  
단장겸예술감독 박정희  
국립발레단  
단장겸예술감독 강수진  
국립오페라단  
단장겸예술감독 최상호  
국립현대무용단  
단장겸예술감독 김성용  
서울예술단  
단장겸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최정숙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김대진  
사무총장 전병화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 정성숙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김형희

○위원장 전재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 대상 기관들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각 의원실로 전달되었고 감사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고 나머지 기관들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님 나오셔서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입니다.

오늘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은 모두를 위한 박물관을 목표로 박물관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박물관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쪽과 5쪽입니다.

인구소멸위험지역 등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금관, 기마인물형 토기, 상감청자, 백자 달항아리 등 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중요문화재로 구성된 소규모 전시 6종을 개발, 전시 1종당 소멸위험지역 공립박물관 두 곳씩 총 12회 순회전시를 개최합니다. 전시와 함께 교육, 공연 등 문화행사도 함께 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지역 활용 제고를 위해 중앙박물관이 기획한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 전을 제주박물관과 춘천박물관에 순회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증 국가지정문화재 중 출토 정보가 확실한 것은 관할 지역 소속박물관으로 임시 이관하여 상설전시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증 석조물을 활용한 야외정원 조성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입니다.

장애인 등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관에 공감각 전시 학습공간 ‘오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설전시실 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문화유산을 다감각으로 체험하는 ‘공간-사이’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박물관 맞이 공간을 재구성하는 등 박물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관람객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상설전시실 개편입니다.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담아 관람객이 우리 역사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처음 마주하는 선사고대관의 도입부에서 고구려실까지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콘텐츠 강화를 위해 역사의 길에 디지털 영상을 활용한 광개토대왕릉비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설전시실 내 외규장각 의궤 전용 전시공간을 신설합니다. 외규장각 의궤 귀환 후 두 차례에 걸친 특별전 성과와 의궤 학술총서 등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전시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9쪽과 10쪽입니다.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특별전 개최입니다.

상반기에 국내 최초 북미 원주민의 문화와 예술을 종합하여 소개하는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과 한일중 국립박물관장 회의 연계 특별전 ‘동아시아의 칠기’를 개최하

였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중앙박물관의 조사·연구 성과를 반영한 특별전으로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전시와 오스트리아 레오폴드 미술관과 공동으로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문화사 조명과 함께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문화 확산을 위한 국외전시입니다.

국외에 있는 주요 박물관 내 한국실을 지원하고 우리 문화재의 국외순회전을 개최하여 우리 문화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시카고 박물관 한국실 확장 재개관을 기념하여 ‘한국의 미술’ 특집전시를 공동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국외순회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외박물관 한국실 지원사업 중장기 거점관으로 지원 중인 3개 기관에서 2025년 11월부터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박물관 역할 변화를 고려한 교육정책 추진입니다.

국립박물관 역할 변화에 맞춰 박물관 교육정책을 학예인력 전문교육 강화와 일반인 대상 핵심 프로그램 위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국가문화자산의 관리 전문인력인 학예직에 대한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보수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박물관 학예인력의 경력 단계별, 전공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무 중심의 필수역량 교육을 이수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 대상 교육은 전시 연계, 실물 중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한 핵심 프로그램 위주로 개편하여 박물관 학습 콘텐츠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어린이박물관 확장 건립 추진입니다.

아동을 중심으로 한 가족 단위 관람객의 증가 및 어린이 대상 전시와 교육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어린이박물관의 공간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 건립을 목표로 박물관 북측에 현 면적의 3배 규모로 확장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4쪽입니다.

박물관 사업의 원천이 되는 조사연구 추진입니다.

박물관이 소장한 우리 문화유산을 심도 있게 조사·연구하여 보고서 및 총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황해도 장무이묘 고구려 무덤 출토품 조사 연구,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서화편 등 보고서, 목록집 및 총서 10종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우리 관이 국가 대표 박물관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 정병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예술 진흥을 위해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쪽부터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창작 지원입니다.

문학, 시각, 공연 등 기초예술 분야 예술가들의 예술창작과 그 성과의 국내외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3700여 명의 예술현장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2024년 예술지원사업 구조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안정적 창작환경을 위한 다년 지원사업을 확대했고 전국 곳곳에 창작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제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연합체인 IFACCA와 공동 주최하는 제10차 문화예술 세계총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해서 내년 5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90여 개국 400여 명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세계총회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8쪽 예술인력 육성사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예술가들에게 창작과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예술 분야의 종사자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 1500명 이상의 청년 예술가들이 그들의 창의력을 펼칠 수 있었고, 2만여 명의 예술계 종사자들이 직무교육 프로그램 수강으로 전문성을 함양했으며, 700여 명의 문화예술인력이 기획·경영·행정, 무대 등 여러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또 정규직 고용전환장려금 제도를 통해서 올해 45명이 근무하고 있는 예술단체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예술정책 및 기부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술 후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문화예술 후원 캠페인 ‘예술나무 운동’ 10주년을 맞아서 개최한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의 성공을 이어 가기 위해서 올해 제2회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9000여 명의 관객이 예술창작의 기쁨을 공유하고 새로운 후원자가 대거 유치되는 등 예술 가치의 공감과 후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 선진국들처럼 예술 지원에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 후원 활성화사업으로 올해 2024년 현재까지 집계한 바로는 248건의 기업 후원이 성사됐으며 내년에는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예술 향유 지원입니다.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258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13만 원을 지원했고 그 혜택을 누리기 힘든 문화소외지역에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들과 함께 아트트럭을 끌고 직접 찾아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또 올해 새롭게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도 추진을 해서 성년기에 진입하는 19세 청년 16만 명에게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기초예술 관람비용을 지원해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 6개 인구소멸지역의 우수한 예술단체를 선정해서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개 지역 모두 직접 가서 현장실사도 하고 그 프로그램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 훌륭한 지역문화 소재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 향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 콘텐츠의 근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었습니다. 최대 5000억 원에 달했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명확한 재원대책 없이 지출돼서 작년 말 기준 626억 원 정도 남아서 고갈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위원회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이해돈 문화정책관, 신은향 예술정책관, 강대금 지역문화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강유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유정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강유정 위원님.

**○강유정 위원** 제가 22일 중인으로 신청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불출석사유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4일 중인으로 신청한 남규홍 '나는 SOLO' PD는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정몽규 축구회장은 사실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탈의실로 삼면이 막힌 현수막을 설치하라고 공문을 보낼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그 평계로 여자축구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서 불출석사유서를 냈고요. 게다가 이 부분은 어제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오늘 도미니카로 출국한 건 국회를 기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축구협회는 지금 22일 국정감사 불출석 알리면서 24일 종합감사, 종감에도 FIFA U-17 여자월드컵 참석 일정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제출한 불출석사유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몽규 회장이 25일 오후 5시 반에 귀국하거든요. 저희 종감 끝난 다음입니다. 21일이 돼서 혹시 또 일정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불출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이렇게 두 번의 국감에 모두 불출석을 한다면

24일 국정감사에 앞서서 어쩌면 정몽규 회장님을 고발해야 되는 것은 아닐지 안전 상정도 고려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남규홍 증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행정실에서 남규홍 PD에게 찾아가서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더니, 전화를 했는데 이후에 행정실과 모든 연락을 끊고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통신사 협조를 얻어서 주소지로 찾아갔더니 그 주소지가 남규홍 PD 주소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도 전달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서류를 앞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결국 증인 출석요구서를 인터넷으로 공시송달하는 이런 웃지 못할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남규홍 PD가 24일 국정감사장에 불출석한다면 그 즉시 국정감사에 앞서서 남규홍 PD 고발 건을 좀 안전으로 옮겨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위원 여러분!

10월 19일인 내일은 제76주년 여순 사건 합동 추념일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만장 일치에 가까운 여야 합의로 10·19 여순 사건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부 차원의 추념식이 여순 사건 피해 지역인 전남 동부권 7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남 보성군에서 진행됩니다.

당시 미흡했던 여순 사건 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 발의되었으나 행안위에 아직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문체위 여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76년 전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여러분 책상 위에 동백 배지를 하나씩 올려 드렸습니다. 동백꽃은 전남 그리고 제주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10·19 여순 사건과 4·3사건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동백꽃은 다른 꽃과 달리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지지 않고 꽃 전체가 한꺼번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동백 배지는 희생된 영혼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추운 땅으로 소리 없이 쓰러져 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이맘때면 10·19 여순 사건 때 쓰러져 간 이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많은 분들이 동백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다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상에 하나씩 놓아 드렸습니다.

10·19 여순 사건에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배현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께서 앞서 정몽규 회장의 불출석사유 건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분명 지난 청문회 당시 정몽규 회장이 국정감사에 빠지지 않겠다고 본인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간사실에 확인해보니 비행편을 24일로 바꿔서 오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땀말을 할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그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조정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확신을 22일 전까지 심어 주지 않는다면 지난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을 물어 국회의 지엄함을 보여 줄 수 있는 고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양문석 위원 안산시갑 국회의원 양문석입니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건희의 변호사 최지우 증인을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의거 고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최지우 증인은 KTV에 대한 국정감사 중 모든 위법 사례가 풀단의 공동저작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지우 증인이 작성한 고소장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총 16건의 저작권법 위반 사례 중 풀단 출처의 영상은 단지 6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0건은 KTV 또는 대통령실에서 제작된 것으로 공공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더 나아가 풀단 출처 6건의 저작물도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공공저작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의거해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최지우 증인의 주장처럼 풀단 측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다면 풀단 역시 공동고소인으로 참여하는 게 타당합니다. 하지만 해당 건의 고소인은 KTV와 그 대리인인 최지우 증인이 유일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위법 사례가 풀단의 공동저작물이라는 최지우 증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명백한 허위 증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일단은 강유정 위원님과 배현진 위원님께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야가 합의한 증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증인으로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다든지 또는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평계로 일관해서 이 국정감사를 피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국정감사가 끝이 나더라도 고발은 물론이고 별도의 청문회나 별도의 현안질의를 통해서 반드시, 여야 사이에 합의된 증인은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유정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몽규 회장 증인 출석의 건과 남규홍 PD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계원 위원님 여순 사건 말씀 고맙습니다. 국회에서 억울한 죽음을 풀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안소위에서 적극적인 법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문석 위원님이 최지우 증인에 대한 고발 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정감사가 끝이 나고 증인 불출석의 문제라든지 또 위증의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여야 사이에 협의를 진행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끝이 나면 종합적으로 여야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원 위원**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장, 지난해 10월 31일 KTV 청와대 국악공연 김건희 여사의 황제관람 당시 현장 참석하셨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참석했습니다.

○ **김재원 위원** 사장, 해당 공연에 몇 시쯤 도착하셨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한 5시 반쯤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재원 위원** 그래요?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국악공연 당일 정용석 선임행정관, 공연이 시작하기도 전에 왔습니다, 미리. 공연 전 정용석 선임행정관이 출연진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사장, 이때 몇 시쯤입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 녹화공연을 한 6시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그때 녹화가 6시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저희 비서실에서 저희 비서관하고 우선은 격려차 가자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때 5시 반쯤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격려차 가자고 그런 게 누구입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희 비서관님이 한번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재원 위원** 비서관님이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김재원 위원**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인데 김건희 여사 오신 사진은 봤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봤습니다.

○ **김재원 위원** 김건희 여사랑 같이 왔습니까, 전에 왔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희가 전에 왔습니다.

○ **김재원 위원** 그런데 공연 시작 30분 전에 옵니까, 선임행정관이? 미리 가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저희……

○ **김재원 위원** 오신다는 얘기 언제 처음 들었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안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 **김재원 위원** 언제 처음 들었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진짜 오신 다음에 알았습니다.

○ **김재원 위원** 오신 다음에 알았다고요? 먼저 가서 있는데?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 **김재원 위원** 오신 다음에 알았다고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 **김재원 위원** 사장, KTV 청와대 국악공연에 김건희 여사가 올 것을 전제로 KTV와 용역회사 직원 등 관계자들과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언제 했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10월 19일, 18일쯤 한 것…… 19일쯤이었습니다.

○ **김재원 위원** 한 번 만났습니까, 두 번 만났습니까, 세 번 만났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때 처음, 한 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총 몇 번 만났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만난 건 한 번 만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KTV 측에서 저희한테 참석 요청이 있으셔 가지고 비서관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행사인지 알기 위해서……

○ **김재원 위원** 10월 19일이에요, 18일이에요? 언제예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정확하게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9일이나 18일쯤 된 것 같습니다.

○ **김재원 위원** 한 번밖에 안 만났다고요?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아까 몇 번 만났는지 물어봤을 때 바로 답이 안 나오더군요. 그건 이상한데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왜냐하면 통화로만, 통화를 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들은 통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통화 몇 번 했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 **김재원 위원** 최소 몇 번 이상입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냥 두세 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 **김재원 위원** PPT 띄워 주시지요.

당시 용역업체 관계자 박종현 PD와 만난 업무일정, 그 용역사의 업무일정 자료입니다. 여기는 19일 날 만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박종현 PD도 지금 19일인지 18일인지 제대로 기억을 못 하고요. 날짜를 좀 다르게 기억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조대의 주무관 국감 증언이 있었습니다. 조대의 주무관과 박종현 PD를 최초로 만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날 만난, 지금 말씀하신 그날 만났습니다. 내용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우선은 어떤 행사인지……

○ **김재원 위원** 행사 당일 날 만났다고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김재원 위원** 조대의 주무관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재원 위원** 조대의 주무관은 행사 당일 날 만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대통령실에 19일 날인가 18일 날인가 그때 들어와서 설명을……

○ **김재원 위원** 왜 거짓말하세요?

박종현 PD하고 조대익 주무관 최초로 만난 시점 언제입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19일 날 그때 대통령실로 들어와 가지고 설명할 때 만난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 **김재원 위원** 그래요? 다시 묻겠습니다.

조대익 주무관과 박종현 PD가 대통령실에 보고를 간 날짜와 시간 언제입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때…… 그러니까 19일 날 그때 오전에 해 가지고 아무튼 만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최초로 만난 시점이 있을 거고 대통령실에 보고를 간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안 만났다고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러니까 어떤 행사인지, 저희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떤 행사인지를 알고 싶어 가지고, 대통령 내외분을 초대하는 행사라고 해 가지고 들어와서 설명하라고 해 가지고 그때 처음 만난 겁니다.

○ **김재원 위원** 대통령 내외분을 초대하는 행사라고 했다,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그때 하종대 원장이 그렇게 중언한 것처럼 하종대 원장이, KTV에서 초대를 요청해 가지고 저희도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를 한 겁니다.

○ **김재원 위원** 조대익 주무관하고 박종현 PD하고 어떤 논의 했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는 그냥 어떤 행사인지를 우선 물어봤고요. 취지가 어떤 거였는지 그다음에 어떤 분이 출연을 하시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대통령 내외분께서, 대통령실 자체가 대통령 내외분들 초대를 다 하니까 그렇게 꼭 가실 수 있는 건지를 비서관실에서는 검토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취지 자체가 국악 진흥과 그다음에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그다음에 부산엑스포 유치라는 취지를 얘기해 주셨고 또 국악공연 녹화를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분들이 오시는, 명인들이 오신다고 해 가지고, 명인들과 젊은 국악인들 이런 분들이 오신다고 해 가지고……

○ **김재원 위원**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사장, 넘어갈게요.

최재혁 방송기획관과 국악공연 관련해서 얘기하러 만난 최초 날짜 언제입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러니까……

○ **김재원 위원** KTV 최재혁 방송기획관이랑 같이 이 공연 관련해서 만나서 얘기한 시점 언제입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전에 연락을 주셨어 가지고요, 그래서 비서관님이……

○ **김재원 위원** 대략 언제쯤 연락 줬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 전, 그 시기 비슷한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말이 됩니까? 전시기획 회사 하시던 분이잖아요. 행사 기획을 하루 이틀 만에 해 가지고 올립니까? 미리 연락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희가 준비한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 **김재원 위원** 그렇다고 해도요. 기획 단계에서 얘기할 때는 그 뒤에 행사를 만들어 갈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시기획 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당일 전날, 며칠

전에 얘기해 가지고 그것 행사 만들어집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최재혁 방송기획관 연락했던 시점 언제입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정확하게 저도, 그러니까 그……

○김재원 위원 어째서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략이라도 기억이 나는 게 맞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 시기라고 알고, 그러니까 18일이나 19일 그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18일이나 19일이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김재원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병국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문체부장관을 역임하시면서 합리적이고 바른 말씀하시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질의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

○조계원 위원 위원장님, 답은 하셔야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조계원 위원 현 이상철 대표 아시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압니다.

○조계원 위원 이상철 대표를 작년 3월부터 3년 임기로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의 대표 이사로 위원장님께서 임명하셨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이상철 대표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로 여러 가지 제보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철 대표 임명 당시 또는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거나 인연이 있었던 분이신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나중에 결정이 된 다음에 보니까 옛날에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한 번 봤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조계원 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분이시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한 번 보셨다 이거지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상철 대표를 임명하라고 연락받으신 적은 있나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전혀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용산에서도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전혀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물론 그러면 김건희 여사로부터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전혀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이상철 대표가 평소 조용히 계셔서 모르는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두텁다며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팔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소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들어 보신 적 있나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들어 봤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저에게 크게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철 대표가 친분을 쌓을 기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1997년 3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재직할 때 이상철은 1985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성남경찰서 정보보안과 등에서 18년간 근무했는데, 시간이 겹치기는 하더라고요. 맞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조계원 위원 당시 공고를, 임명을 하실 때 한국문화진흥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서 2022년 1월, 2022년 10월, 2023년 2월, 3차례 걸쳐서 공고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채용공고문에 있는 지원 자격을 보면 골프산업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분이 뉴서울CC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2022년 10월에 두 번째 공모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면접 심사에서 탈락했더라고요. 맞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것은 제 이전인데,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세 번째 공모에 다시 지원해서 그때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했고 최종후보 3명에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대표이사 공모 때는 모두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 못 하는데 열몇 분이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총 42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서류심사 통과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사회에 올라왔던 사람은 열몇 분이라고 제가……

○조계원 위원 그분들은 골프장 경영 경험이 있는 사람 등등 해서 12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했겠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서류심사를 최종적으로 통과한 면접 대상자는 그중에서 다시 6명을 추립니다. 그런데 이 6명 중에서 유일하게 골프장 경영 경험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

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이상철 지금 현 대표입니다.

○**조계원 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당시 공모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다른 분들은 골프장 대표나 사장 그리고 상무를 경험했던 분인데 이상철 대표는 그 경험이 없더라고요. 프로골프협회 시니어지회장 정도의 경력을 제출했고요. 그런데 골프장 운영 경영 경험이 전무했던 이상철 후보가 쟁쟁한 경쟁자들 모두 제치고 최종 후보 3인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위원장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저희가 경력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골프장 경영 경력 일체,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라 했는데 현 대표이사의 경우는 물론 아까 확인된 바와 같이 골프장 경영 경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따르면 경영 경력은 없지만 채용 자격요건상 골프장 경영 경력이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당시 이상철 후보가 제출한 지원서 경력사항입니다. 경기성남소방서, 경기지방경찰청, 필리핀 소재 아칸토스 호텔 운영, 한국프로골프협회 시니어지회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골프산업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경력은 어느 부분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저것은 잘 아시겠지만 뉴서울골프장의 역대 사장들의 이력을 한번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역시 문방위에서 제 스스로가 뉴서울골프장 운영의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이 직전의 대표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형사상 구속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이전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골프장 경영하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했고 그런 결과, 그 이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사장, 전무, 감사……

계속 말씀해도……

○**조계원 위원** 예.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이 세 분 임명직을 거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눠먹기식으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골프장은 그냥 문예진 흥기금 모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지만 매년 보니까 5년 동안을 25억 딱딱 맞춰 가지고 들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조계원 위원**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영자를 뽑는 것 아닙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골프의 경험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 분을 선임했고 그다음에 그분의 지원서에도 경력 자체가 증빙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아칸토스 호텔 이것도 경력이 증빙이 안 되더라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위원님께서 이분을 임명하고 1년 지난 이 시점의 뉴서울

골프장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전에 누적돼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됐고, 지금 현재 회원들로부터 골프장의 질이 상당히 향상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조계원 위원 저희가 제보받기로는 반대로 얘기를 들었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반대가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실제 경력은 전무한 상태의 이상철 대표를 임명하게 된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출한 경력의 증빙이라도 해 달라. 그런데 아칸토스 관련해서는 폐업을 해서 증빙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시니어지회장 관련해서 경력을 증빙해 달라고 했더니……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경력 증빙서류가 아니고 저 사진만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경력 증빙이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이 시니어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임의단체다 보니까 사무실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를 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조계원 위원 그러면 증명서조차 뗄 수 없는 그런 경력인데도……

지금 뉴서울CC의 연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잘 압니다.

○조계원 위원 연간 수익이 353억 원에 달하고, 2023년 기준입니다. 이런 큰 골프장의 대표를 뽑는데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대표 혼자 경영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무를 좀 전문적인 사람을 갖다 놓고 사장을 보다 더 회원의 입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 많은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경찰 경력을 통해서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엄정하게 직원 관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그건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런데 결과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조계원 위원 실제로 저희가 제보받기로는 오히려 뉴서울CC의 그동안에 관리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퇴보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고요.

중요한 것은 채용을 함에 있어서 검증되고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낙하산 인사다, 그리고 골프장이 영망이 됐다 이렇게 지금……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이런 지적이……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어느 부분이 영망이 됐다고 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조계원 위원 그건 조선일보의 보도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 보도 못 보셨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제가 그 사안도 다 보고를 받았고요. 보도도 봤는데 일부 회원 중에서 불만을, 예우를 해 주지 않는다, 과거와 같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제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상한 문제점이 아니라 사실상의……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결과는 지금 현재 문예, 결과가 얘기를……
- **조계원 위원** 경력 증명이 되지 않은 분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 **조계원 위원** 아니, 사실상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그걸……  
그게 검증이 된 겁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저는 뭐 그렇게 해 가지고……
- **조계원 위원** 그러면 경력 검증도 제대로 않고 임명한 게 정상적으로 임명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저는 정상적으로 임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계원 위원** 경력 검증이 제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경력증명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경력 검증이든 어떤 부분이든, 그러면 과거의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과거 뉴서울골프장의 사장들이 어떤 절차를 갖고 했는지……
-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 이상으로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 정병국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과거에 설사 문제가 있었다손 칩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사장도 문제 있어도 정당하다?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 **위원장 전재수**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과거에 문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문제는 용인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됐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뉴서울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문예진흥……
- **위원장 전재수** 정병국 위원장님, 됐습니다. 묻는 말에 짧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원 위원** 확실한 것은 뉴서울골프장의 규모가 작은 규모도 아니고, 이상철 대표는 지난달까지 2억 원에 가까운 봉급과 성과급을 챙겨 갔습니다. 이 큰 뉴서울CC의 대표를 뽑는 채용 절차가 경력은 사실상 확인되지 않은 그런 아칸토스와 그다음에 저희장 경력 빼고 나면 남는 경력은 소방공무원 경력과 경찰공무원 경력이 전부입니다. 이런 분이 뉴서울CC 골프장 경영에 적합하다고 임명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건 국민들의 공분을 살 일 아니겠습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어쨌든 간에 지난 1년 동안 성과를 보면 그동안 25억씩 문예진흥기금을 납부해 오던 것을 지난해는 30억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골프장 부지도 아닌데 골프장 부지로 해서 부당하게 내던 세금까지 용도변경을 해서 48억을 회수해서 지금 골프장 리모델링하는 데 활용을 해서 골프장 회원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개선 때문에…… 그 이전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기계조차도 다른 인근의 골프장에서 빌려다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는 지금

현재 과거보다는 훨씬 더 호평을 받는 골프장이 됐다는 것을 자신 있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문예진흥기금 납부를……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시지요.

○조계원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납부 이런 말씀하시는 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철 대표를 임명한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위원장님은 일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하지만 그 반대되는 의견들이 많이 제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특혜 채용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타이 이스타제트 채용된 것을 검찰이 문제 삼아서 엄청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좌까지 짹,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계좌까지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철 대표 채용 건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혀위 경력 증명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혀위 경력은 없었고요. 혀위 경력은 없었고 다만 확인이 안 됐고, 그렇게 임명한 사장이 어떤 비리가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절차상에 어떤 하자가 있었거나 절차를 원칙을 뛰어넘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간단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요? 예.

○조계원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국감에서 답변을 보셨지만 유야무야,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부정하게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낙하산, 실제 지금 핵심 문제는 낙하산 채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경력사항이나 경력증명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경력검증도 채용 당시 이루어지지 않은 분이 임명됐습니다. 일부 검증했다라고 하는 내용조차도 정식 증명서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과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다는 정도입니다. 이것 소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경찰 수사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병국 위원장님은 오늘 즉시 자격이 없는 이상철 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해임을 해도 부족할 판에 계속해서 두둔하고 계시는데 일단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두둔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취업 비리와 각종 특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모르고 경쟁에 나섰던 경쟁자들의 실망 그리고 좌절, 분노를 일으킨 사실상 나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땅히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국정감사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여야 사이에 심도 깊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부산 수영의 정연욱 위원입니다.

김희섭 국립도서관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접니다.

○정연욱 위원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대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주 역할이, 이미 알려진 건데 국가 문헌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 관리하는 것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정연욱 위원 서고 보존 능력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올해 3월 달 배포된 자료 같습니다, 중앙도서관 본관의 보존 능력이 약 1500만 권이고 2021년 2월 말 기준으로 1300만 권 정도 해서 그때 당시 포화율이 88%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이 문서 수장고 포화도는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94%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94%가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포화도요.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사실은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한계를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최소한도 적정 한계라는 게?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보통은 한 74% 왔다 갔다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94%니까 이건 진짜……

○정연욱 위원 거의 100%에 육박하는 거지요?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매년 이렇게 문서가 쌓이면서 총 연평균 증가량이 50만 권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서고 포화량은 다 채웠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아마 준비하는 게, 지금 PPT 뜨겠지만 문현보존관을 만드시겠다는 거였지요?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정연욱 위원 이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셨습니까?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계획은 올림픽 끝난 이후 바로 2019년부터 강원도랑 그다음에 조직위랑 우리 도서관이랑 MOU를 맺고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정연욱 위원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올해까지 끝나는 거였지요?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맞습니다.

○ 정연욱 위원 완공이 올해 아닙니까?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그렇습니다.

○ 정연욱 위원 삽도 안 떴잖아요?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 정연욱 위원 이것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 정연욱 위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 이게 기재부, 조달청, KDI 이런 예타 문제하고 연결돼서 비용 계산만 하고 지금 허송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표현을 허송세월이라고 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에 중앙도서관에서 이 공사비 예측을 700억으로 예측했습니다. 1년 지나 20년에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600억 원이라는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22년 설계사무소에서 기본설계를 1200억 원으로 제안을 하니 조달청은 아마 이에 대해 이 정도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시고 2023년—작년이지요—기재부 예타는 1200억 원을 받았습니다.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니 980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무려 한 5년간에 걸쳐 이 비용 계산만 하다가 날 쌤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글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로 시급한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애초 계획이라면 올해 완공이 돼서 그런 서고 보존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어야 되는데,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설계가 잘됐는지 적정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때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증가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총사업비 증가의 가장 큰 이유가 현장 여건이랑 그다음에 공사 범위 이 두 가지가 크게 그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 정연욱 위원 2019년에 계획을 세우신다면서 부지나 이런 문제 검토하셨을 텐데 그때 아무런 계산이 없었다는 겁니까?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부지 문제는 아니었고요,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아시겠지만 IBC……

○ 정연욱 위원 아니, 제가 그 내용은 다 아니까……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 정연욱 위원 문제는 더 큰 게 문제입니다. 올해까지 공사 자체가 5년간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그것도 문제겠지만 지금 공사 관련 내년도 예산이 아예 없지요?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 정연욱 위원 왜 못 넣었습니까?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 재조사를 했고, 그게 이번 8월 22일 날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게 된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 정연욱 위원 문서 보관 자체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일단……

○ 정연욱 위원 고문서 같은 경우는 몇백 년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맞습니다.

○ 정연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보관 기간이, 수장고 포화 상태가 이렇게 계속되면 파

손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그런 실정입니다.

○ **정연욱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사오 년 동안 업무 자체를 이렇게 방치한다는 건, 뭐 또 이게 기관장 문제 이런 겁니까?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글쎄,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 증액이 가장 커던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 **정연욱 위원**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됐으니 그러면 당연히 삽은 내년에도 못 뜨는 거 아닙니까?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글쎄,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인데요, 한 38억쯤 된다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욱 위원** 우리가 중앙박물관의 여러 수장고 문제도 많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 각종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한 번 훼손된 문화재 부분을 어떻게 복원하느냐의 문제는, 지금도 지적하려면 저도 지적할 게 많습니다. 일단 중앙박물관 문제는 넘어가더라도 이 고문서 문제는 특히 보관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훼손되면 회복도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그 실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개인이 그냥 갖고 있다는 한마디 가지고 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데, 지금 더더욱 우리가 빤히 눈에 보이는 고문서도 이렇게 5년 넘게 방치한다? 이건 엄청난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게 예산 타당성조사 문제로 치부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그래서 그게 정말 시급하다는 건 다 인식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총공사비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려면 왜 열심히 안 했느냐? 그것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따기 위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다 있었고요. 그런 단계 단계를 거치다 보니 좀……

○ **정연욱 위원** 단계 단계로 따지기에는 너무나 직무유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현 위원** 정용석 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하셨는데 누구 추천으로 들어가셨어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제가 23년간 전시기획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 **이기현 위원** 전문가이셔서 들어가셨다 이 얘기지요? 누구 추천은 따로 없었고?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18일 날, 19일 날 대통령실에서 조대의 PD와 업체 관계자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조대의 PD는 저희한테 정확하게 날짜를 특정해 줬습니다. 하루 앞날인 18일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 만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한 번밖에 안 만났습니다.

○이기현 위원 한 번밖에 안 만나셨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면 조대익 PD가 잘못 진술한 건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니, 18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18일이 맞는 것 같아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이기현 위원 어떤 보고를 받으셨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때 KTV에서 그런 행사를 있다고 대통령 내외분……

○이기현 위원 그래서 내외분 오셨으면 좋겠다, 국악공연 한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국악공연 행사라고……

○이기현 위원 엑스포 어찌고저찌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그런 이야기들을, 우선은 취지나 이런 것들을 설명……

○이기현 위원 선임행정관이셨는데 보고받으실 때 혼자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행정관도 같이 있었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때 다른 행사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 혼자 우선내려가서 받으라고 비서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기현 위원 의전, 부속실 안 왔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안 왔었습니다.

○이기현 위원 혼자 받으셨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보고받고 나서 상부 보고를 어떻게 올렸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우선은 그 취지나 이런 부분들, 누가 오시는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비서관님께 그냥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래서 취지는 보고드렸고, 결정은 본인이 안 하신 거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여사님이나 대통령님 가시는 행사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안 해 보셨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우선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청와대 개방 1주년에 대한 부분과 국악 진흥과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유치……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여러 번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종대, 최재혁, 조대익, 그날은 조대익 PD와 실무자가 왔는데 선임행정관께 김건희 여사 오신다라고 확정을 하고 행사 기획을 보고했던 거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고를 하든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도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셨

으니까, 우선 대통령실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내외분께서 참석하실 수 있는 행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보는데 저희도 그 행사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행사 취지는 본인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엑스포 유치를 위한 행사에, 처음에 외교관들 오신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외교관들……

○이기현 위원 외교관들 오신다고 보고받으셨을 텐데, 18일 날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분들 10명 초청해 가지고 엑스포 유치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고요. 180여 명의 주한대사들이 전부 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대사들입니다. 그중에 10명 부르면 나머지 초청받지 못한 170여 개 국가는 엑스포 유치에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런 보고를 받고 대통령실에 근무하신 분들이 이게 부산엑스포 유치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여사와 대통령이 가자…… 그리고 초청 대상자는 다 합쳐서 출연진까지 30여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관련돼서는 본인은 좋은 행사의 취지라고 판단하셨다고 하지만 KTV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고할 때 그리고 여사와 대통령이 오신다 이런 표현을 듣고 의전이나 부속실에 확인해 보지는 않았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것은 저희가 그때 확인할 수 있는……

○이기현 위원 행사가 31일이었요. 31일이었는데 보고가 18일이었다고 하면 13일 후인데 13일 후에 대통령과 여사가 참석한다고 확정도 되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확정되지 않았으면 받지 않고, 설사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선임행정관급에서 보고를 받고 ‘좋은데, 그러면 대통령하고 여사님 가시게 해야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적어도 문체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은 아닙니다.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8일 날 보고받고 그리고 KTV가 2건의 문서를 더 작성합니다. 이를 후에 20일 날 자기 KTV 내부 사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 ‘대통령 내외, 각국 주한대사 부인, 문화계 저명인사 초청’ 이렇게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26일 날 대관 신청을 문체부에 합니다. 31일 날 우리가 청와대 관저를 써야 되겠으니 관저를 빌려 달라, 여기에 대통령 내외라고 확정이 돼 있어요. 26일, 행사 불과 5일 전입니다.

이런 것이 대통령실의 확정 없이, KTV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영부인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행사를 가지고 상급기관인 문체부에 공문을 보내서 장소 대관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공직생활 한 1년 하셨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도 근무를 하면서 각 지자체 행사든지 전부 다 대통령 내외분들을 초대한다고 하면서 초대 명단에는 넣어서 다 하기 때문에……

○이기현 위원 보고를 하셨고 문체비서관이 오케이를 안 했어요. 문체비서관이 여기 와서 진술을 어떻게 했냐면 갈 수 없는데 자꾸 와 달라고 해서…… 그런데 KTV는 행사 5일

전까지 문체부에 대관 신청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온다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 장소를 빌려 달라,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KTV는 계속 주장을 했고 문체비서관실에서는 부속실에 분명히 보고했을 겁니다. 가시는 거지요 하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 증거, 다음 PPT 봅시다.

그 18일 보고 이후에, 조 PD가 같이 협업했던 용역업체의 테이블 배치표예요, 저기 보면 아래 빨간 점이—문체비서관실 해 보셨으니까—여사지요? 파란 점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저 앞에 보면 홍성일이라는 분이 나와요. 홍성일 지엔씨미디어 대표 그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안 왔습니다.

○이기현 위원 안 왔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그 행사가 아예 취소가 됐습니다.

○이기현 위원 무슨 행사가 취소돼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문화계의 저명인사라든지 아니면 주한외교사절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사님이나 아니면 대통령 내외가 오신다는……

○이기현 위원 홍성일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전혀 모르시는 관계…… 그러니까 예전에 몇 번 만났던, 뭐 한 번 정도는 만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걸 어떻게 아시지요, 본인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제가 지엔씨미디어의 부사장을 했었습니다.

○이기현 위원 홍성일 사장하고 항상 같이 다니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이라고 단정하지요?

다음 PPT 한번 봅시다.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저 등 뒤가 보이는 분은 누굴까 이렇게 고민을 해 봤어요. 저기 보면 우리 사장님 한가운데에 있고 하종대 사장, 신영희 국악인 그리고 그 당시 문체비서관인 황성운, 전 비서관인 유병채 이렇게 다 와 있어요. 저 등 뒤가 보이는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홍성일 사장 사진 한번 띄워 봐 주세요.

홍성일 사장입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 절대 아닙니다, 진짜.

○이기현 위원 누가 홍성일이 아니에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기 뒤에 사진 말씀하셨던 분은 지엔씨미디어 사장이 아닙니다.

○이기현 위원 누굽니까, 그러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것은……

○이기현 위원 저 자리에 문체비서관실 그다음에 유병채 실장 그리고 KTV 관계자와 연기자 일부만 와 있었어요. KTV가 무관중이라고 주장하는 장소에 저분이 와 있는데

저분은 KTV의 관계자도 아니고 공연자도 아니고 문체비서관실 직원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모른다고 하세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뭐 공연 관계자든지 아니면……

○이기현 위원 저 사람이 공연 관계자예요, 전혀 출연한 적이 없는 분인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이재용 아나운서라든지 아마……

○이기현 위원 저 날 양복 입고 출연한 공연 관계자 있습니까? KTV의 직원들이 양복 입고 카메라 잡나요? 누구예요? 빨리 말해 보세요. 아니, 한 명이라니까.

지금 이 관람이 무관람이라고 KTV가 계속 주장했고 김건희 여사는 단순히 격려하러 왔다고 하는데 저 외부인 누구냐고요? 몰라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는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엔씨 사장은 아닙니다.

○이기현 위원 홍성일 사장 아니에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아닙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홍성일 사장의 안경 그리고 귀 모양 그리고 뒤태, 홍성일 사장의 여러 사진을 제가 본 거예요. 저는 홍성일 사장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었던 불과 일주일 전에 만들어졌던……

그 앞의 PPT 한번 봅시다.

테이블 배치도에 여사 바로 앞에 누구였느냐면, 저희가 암흑 처리했지만 반기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부인 그리고 그 옆자리가 홍성일 지엔씨미디어 대표로 되어 있어요. 제가 나머지는 지웠는데, 나머지 분들은 신상에 대한 문제랑 안 오셨기 때문에.

홍성일 지엔씨미디어 대표, 본인이랑 같이 근무하셨던 분인데 그러면 저 홍성일 미디어 대표는 업체에서 무슨 기준으로 저 배치표에 올렸던 겁니까, 무슨 기준으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지금 예술 전시업계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여서 저희가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악 진흥이든 청와대 개방 등에 대한, 문화계 저명인사들에 대한 의견을 좀 듣는 자리를 처음에 준비를 했었지만 그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이기현 위원 최종적으로 취소됐다고 하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정리……

○이기현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홍성일 지엔씨미디어 대표가 그날 행사장에 분명히 안 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주세요. 그날 유일한 외부인 이에요, 사진상으로 보면.

저 날 행사장이 비공개 행사였고 비관람, 무관중 행사였다고 그러는데 본인…… 바로 김건희 여사의 앞에 그다음에 신영희 국악인 앞에 유일하게 외부인 1명 있습니다. 누구인지

밝혀 보세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정용석** 그때 녹화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녹화 관계자가 아닐까……

○ **이기현 위원** 녹화 관계자가, KTV 직원이…… 하종대 사장은 분명히 얼굴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하종대 사장도 아니고 누구도 KTV에서 현장에 양복 입고 저렇게 나타날 사람이 없어요. 누구예요? 기억해 보세요. 분명히 기억하시는데 얘기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행사에 갔던 선임행정관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사도 오지 않는데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었던 선임행정관입니다. 누구인지 빨리 얘기해 보세요.

이따가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오 위원** 예술인복지재단 직무대리님, 앞쪽 왼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 정철** 예, 말씀하십시오.

○ **진종오 위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권리 보호 교육 운영 예산이 24년도 현재 2억 6000여만 원, 21년도 1억 4000만 원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 교육이 크게 계약 교육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되어 있지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 정철** 예, 맞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리고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시행되었는데 그 또한 보면 교육시간이 매우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보면……

(영상자료를 보면)

자료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서 유형별 신고 접수 현황에 보면 수익배분 거부 그리고 지연·제한 등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예술인 권리 보호의 목적으로 예술인 대상 교육을 진행해 왔고 그중에 계약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두 특정 분야를 중심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 정철** 저희가 불공정 관행 중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서 서면계약 관련 교육은 필수적으로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오늘 자 신문에 보면 대중문화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연습생 과정을 거치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성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소속사에서 역압이 되면서 교육을 받다 보니 스트레스도 쌓이고 유명해지면 그 스트레스가 분출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복지재단에서 교육적인 프로그램, 인성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지원으로 예술 발전에 이바지’라고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 커리큘럼을 계획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어떤 겁니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 정철**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예술인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실제 교육 참여자들의 의견은 잘 안 듣고 있습니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교육 커리큘럼  
지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의견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전후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 신고 접수 유형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등이 73% 있는데 이게 계속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꾸준히 증가세로 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022년 9월에 시행된 이후로 사실은 모든 신고 유형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 진종오 위원 가장 많지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위원님의 지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일단 관계 당국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조사 후 권리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소송 지원이라든지 수익에 대한 권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요청받게 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술인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게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교육시간이 전체 870분 중에서 시간을 체크해 본 결과 아무리 많이 잡아도 275분,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료 보이시지요? 거기서 이렇게 31%라 하더라도 막상 실제로 보면 교육시간이 더 낮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교육시간……

○ 진종오 위원 실태조사도 하셨습니까, 혹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아니요, 교육시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로 인정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에 교육시간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교육을 질적으로 더 높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리고 온라인·오프라인 간 교육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온라인 교육이 아주 매우 저조한 접수가 나오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교육의 콘텐츠 부족 그리고 실무 내용 강화, 최신 법령·지침 미반영 등 이런 교육 내용이 부실하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세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진정으로 예술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게 결론으로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만족도조사 기반으로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고 말씀,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요. 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소속사들 측에다가, 계약서를 전면 검토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소속사들이 잡을 관계로 인해서 갑질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예인 지망생들이, 예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에 매우 관대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교육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 정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앞으로 향후 교육 내용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정말로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 복지가 좀 필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 정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종오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위원** 국립중앙박물관 김영수 단장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국립중앙박물관에 43만 점의 유물·보물들이 보관되어 있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한데 모은 보물창고이지요?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김영수** 예.

○ **양문석 위원** 그런데 지난 6월 19일 날 누수로 인해서 일부 유물이 훼손됐고, 그 훼손되는 과정에 있어서 배관을 타고 오수가 쏟아져서 유물 7점이 훼손됐지요?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김영수** 어……

○ **양문석 위원** 그것 그냥 대답을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김영수** 예.

○ **양문석 위원** 그리고 조선시대의 목제 장이 오물을 뒤집어썼습니다. 이게 철기나 석기가 아니고 목제가 오물을 뒤집어썼고요. 그다음에 공양구가 침수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물관이 사전·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면요, PPT 준비됐나요?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6월 12일 수장고 출입일지를 보면 특기사항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6월 12일이 어떤 날이에요?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김영수** 12일에 누수 경보가 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누수 경보가 울렸는데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김영수** 위원님, 제가 그것 잠깐 말씀드리면……

○ **양문석 위원** 그리고 12일 수장고 출입일지 특기사항에 미기재를 했어요. 그렇지요?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김영수** 그때 누수 경보가 울려서 저희 직원이 가서 천장까지 다 보고 확인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 **양문석 위원** 그래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누수 감지기가 울렸으면 누수감지기가 고장 난 거잖아요?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김영수** 그래서 누수 감지기가 고장……

○ **양문석 위원** 아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누수 감지기가 경보를 했어요. 그러면 누수 감지기가 고장 난 거잖아요. 그러면 특기사항에 ‘누수 감지기 경보, 누수 감지기 고장’을

쓰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도 안 썼어요.

그 위가 바로 식당이고 식당 오픈수가 훌러서 수장고를 덮쳤단 말이에요. 식당 직영해요, 위탁해요?

○ **국립중앙박물관행정운영단장 김영수** 저희가 박물관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식당에다가 위탁한 걸로……

○ **양문석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운영단장의 입장에서 쳐다보면 별문제 아닌데 계속해서 식당 영업을 유지시켜 줘야지 이거 문제를 삼으면 식당 영업에 중대한 손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닌가라는 고려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리규정 한번 따져봅시다.

모든 출입관리 인원은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 **국립중앙박물관행정운영단장 김영수** ……

○ **양문석 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9조(수장고 출입관리) 3항 ‘수장고 출입자는 모두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저기 떠 있잖아요. 제가 이것까지 찾아서 읽어 드렸어요. 그런데 6월 12일에 어떤 기재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사고가 난 6월 19일, 경보 두 번 울렸지요?

○ **국립중앙박물관행정운영단장 김영수** 예.

○ **양문석 위원** 6월 12일에도 경보 한 번 울렸는데 그러면 누수 감지기가 고장이 났구나…… 아무 문제 없었는데 뜬금없이 경보를 울렸어. 그리고 이미 그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6월 19일 날에 두 번의 오전·오후 경보가 울리자 그제서야 당시관장이 부랴부랴 현장을 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조치도 안 돼요.

6월 25일, 28일 시설점검해서 누수와 마감재 오염에 양호하다고, 이상 없다고 이렇게 또 시설점검 체크리스트가…… 은폐합니다, ‘아무 사고가 없었어요. 수장고 전혀 문제없었어요’. 식당의 오픈수가 유물 7점을 덮쳤고 심지어 석제도 철제도 아닌 목제 유물을 덮쳤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없었던 일로 무마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 **국립중앙박물관행정운영단장 김영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양문석 위원** 말씀하세요.

○ **국립중앙박물관행정운영단장 김영수** 이게 6월 25일인데요, 위원님. 그게 매월 한 번씩 수장고를 점검하는 날인데 그때는 이미 누수가 된 것이 확인이 됐고—21일인가—그래 가지고 그때는, 25일에 점검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 **양문석 위원** 에이 참, 이때도 이미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처리가 안 됐었을 때예요.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 **국립중앙박물관행정운영단장 김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 **양문석 위원** 계속해서 자꾸 은폐하고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서, 지금 부드럽게

이야기하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김영수 예.

○ 양문석 위원 우리 방에서 2024년 박물관 내 전체 공사 목록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식당 방수 및 배관 공사는 쪽 빼고 제출했어요. 왜 뺐을까?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설마 재들이 알까? 재들이 취재했을까? 그리고 어디까지 알까? 모르니까 쪽 빼고 제출했어요. 허위 자료 제출입니다, 허위 자료 제출.

두 번째, 사건 당일, 그러니까 6월 19일 날 윤성용 전 관장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문체부 담당국장, 보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19일 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양문석 위원 보고받았어요?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예.

○ 양문석 위원 구두로 받았어요, 문서로 받았어요?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문서로 받았습니다.

○ 양문석 위원 문서 저희 방에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예, 알겠습니다.

○ 양문석 위원 그리고 외부에는 철저하게 비밀로 했습니다.

그다음 PPT.

7월 30일, 8월 6일, 8월 8일 마감재 공사 전 분야별 수장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여기에도 이상이 없어요. 특이사항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문서 허위 작성이지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일지처럼 그때그때 하는데 한 번도 국립중앙박물관 문서에는 2층 식당의 오페수가 1층 수장고로 훌러들어 가서 문화재가 훼손당했다라는 어떤 서류상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다 이상이 없어요. 허위 사실 기재지요? 맞잖아요. 그냥 맞다고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사과 크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거짓말로, 허위 증언으로 고소당합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김영수 예.

○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왜 이랬을까요?

김재홍 관장님, 관장님 오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런 허위 문서가 작성이 됩니다. 말씀드렸지요? 관장님, 언제 오셨어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7월 8일 자로 임명……

○ 양문석 위원 7월 8일 자로 여기 왔는데 7월 30일, 8월 6일, 8월 8일 마감재 공사 전 분야별 수장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내부 마감재 탈락 및 오염 여부, 누수 발생 여부, 금고문·슬라이딩도어 등 이상 여부, 이상이 다 없어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관장님이 왕따를 당했거나 아니면 관장님이 무마시켰거나. 전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관장님에게 허위 보고했다…… 저는 이런 문제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내부의 행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이 문제를 제가 너무 진지하게 보는 게,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들어가세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유물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단지 이 사건만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은폐하고 거

짓말하고 허위 서류 작성하고, 관장이 구체적인 실무를 모르면 관장 속이고 또는 관장이 무마해 주고, 이게 현재 국립, 사립도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의 행정 실태라는 겁니다.

저는 관장님께 요청합니다. 정기적으로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해서 끊임없이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은폐 이런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좀 처리하자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됐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직원들이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저는 가자마자, 비와는 관계없이 수장고는 당연히 맨 처음에 가서 점검하는 거고 그때 유물관리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는 물론 제가 검토 안 했습니다만 서류를 별도 보고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박물관 기준 직원들은 특별히 보고한 것과 그리고 제가 눈으로 확인해서 사후 문제 철저하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보고한 걸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일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단장님이 말씀을 드려서 저도 또 하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마는 일지 문제는 아마 제 이야기를 좀 더—제 시각입니다—드리자면 기준에 이미 19일 날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결 문서로 따로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특히 아까 말한 성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관장인 저도 포함해서 긴급상황이라도 하길 바라고요. 아마 그때 좀 급박한 상황에서 했다는 것은 변명입니다마는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딱 1분만 더 주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비를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때 해 주십시오. 오늘 연합뉴스 업무보고 때문에 좀 촉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한국문학번역원 전수용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앞에 나와 주시면 제가 더 잘 보일 듯합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겠어요?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소식이 전해 와서 가장 기뻤던 기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제를 두고 영혜라는 미국식 번역, 영국식 번역이 아니라 지우 어머니라고 번역을 한다거나 그리고 ‘소년이 온다’의 5·18 피해자인 5월의 신부들을 산타마리아로 번역하는 과정의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오늘 마흔두 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을 받게 된 원동력이 아닌가 싶고요.

(전재수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 작가들……

PPT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8년 5건, 20년 6건, 21년 4건 이렇게 죽 한국 문학의 우수성을 알려 왔고요. 한국 문학의

국제수상 주요 내역들이 여기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입후보된 것까지 하면 몇 건인지 아시지요? 97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에서 별로 줄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도 한편으로 20억으로 소폭 증액된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죄송한데 20억 증액은 뭐에 대한 언급……

○ **강유정 위원** 번역 예산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번역 예산 지원현황.

그것 말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 전문인력 양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2년부터 계속 삭감되고 있지요, 원장님?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 **강유정 위원** 22년에 얼마였습니까? 41억이었습니다, 23년에 38억이고.

내년 정부안 얼마입니까?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내년에는 이십……

○ **강유정 위원** 1억입니다. 절반 넘게 삭감됐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데보라 스미스 같은 훌륭한 번역가가 나오기 위해서, 제가 데보라 스미스를 만날 수 있었던 건 14회 한국문학번역상 수상식에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나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후에도 ‘백의 그림자’라든가 혹은 ‘소년이 온다’ 같은 다른 작품들 번역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 너무 줄어든 것 아닙니까?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번역인력 양성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번역아카데미를 한국문학번역대학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법안은 발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강유정 위원** 제가 죄송해요, 충분히 전달이 돼서……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알고 계시지요?

○ **강유정 위원** 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가진 게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단순 번역에만 지원을 하는 걸 유지할 게 아니라, 그것도 늘리면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번역아카데미의 한국어 번역을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의, 외국어를 네이티브로 하고 있는, 자신의 모국어로 하고 있는 그분들이 한국학을 공부하고 나서 문학번역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는 데보라 스미스 같은 전문적인 번역가로 크고 싶어요, 공부 더 하고 싶어요 하는데 예산은 반 토막 났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와 함께 원장님에게 좀 다짐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노벨문학상 작가 문학생명이 끊길 뻔한 블랙리스트 사태가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2014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다뤘던 ‘소년이 온다’를 출간한 이후였는데요.

그다음 PPT 보여 주세요.

한국문학번역원이 해외문화교류 행사에…… 이게 출판이라든가 지원금, 세종문학 도서에만,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측의 지시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다음 좀 보여 주세요.

런던 도서전 그리고 파리 도서전, 베를린 문학축제 여기에 전부 다 파견하지 말라는 정부 측의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 보여 주세요.

직접 주고받았던 메일인데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서 이미 밝혀진 부분도 있지만 이 메일의 내용을 보자면 여기 부분에 ‘파견에 주의해 달라. 배제해 달라’고 지시를 했고 왼쪽 편에는 안 보이게 돼 있지만 오른쪽에 펼쳐 보면 한강 작가를 비롯해 그 당시 블랙리스트 작가들에 대해서 해외에서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은, 번역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파견이 약속된 부분이라고 잘 견뎌 줬던 부분은 감사드리고 싶지만 그때 원장은 지금 원장 아니시지요?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 **강유정 위원** 지금 원장님, 혹시라도 이런 식의 외부 지시나 문체부에서 보내는 메일, 출판인쇄산업과가 그때 보냈거든요. 이런 이메일에서 특정 작가를 배제하거나 혹은 초청 인원에 있어서 다시 고려해 봐라 이런 메일이 온다면 그때 번역원장 혹은 번역원 직원들처럼 잘 버티실 겁니까?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그래야지요.

○ **강유정 위원**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그렇습니다.

○ **강유정 위원** 만약에 그때 이런 도서전들에 요청했던 작가를 보내지 못했고 그래서 이런 번역사업이 중간에 좌초됐더라면 오늘의 노벨문학상은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감사합니다.

○ **강유정 위원** 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관장에게 묻겠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예산 17억 원 이상을 들여서 국가대체자료 공유시스템 역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나요?

○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전국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앱 환경에서 대체자료를 갖다가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 **강유정 위원** 제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용편의성 점수가 빵점이네요? 이 편의성 점수라는 게 2024년 기준으로 다운로드 건수를 봤더니 10년이 넘는데 4만 80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1년에 한 5000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봤더니, 시청각장애인 200명 대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봤지요. 그래서 앱에 대해서 콘텐츠가 적합하느냐라는 질문에는 7점 만점에 5점 정도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5점도 안 됐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당연히 회원 가입을 해야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지요?

○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맞습니다.

○ **강유정 위원** 제휴기관에 등록된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돼요. 모든 도서관은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장애인도서관이지만 꼭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또, 만약에 몸을 많이 쓰기 어렵거나 혹은 감각적으로 불편함이 계시면 로그인만큼은 다른 분 아이디로 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보호자께서? 그런데 부모나 보호자, 보조자, 교육자, 이 시스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도서관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강유정 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의했어요. 그리고 국가대체자료에 있어서 꼭 장애인 당사자분이 아니라 부모라든가 교육자나 가까운 분이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보조자가 직접 할 수 있게 하긴 했는데 문제적인 건 어쨌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너무 현행 법의 축소해석을 미리 먼저 했던 건 아닌가…… 왜냐하면 이용은 어떠세요, 이용할 때는, 앱이 아닐 때는? 다 가능하지요?

○ **위원장대리 임오경** 강유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강유정 위원** 다 가능하지요?

○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예, 가능합니다.

○ **강유정 위원** 맞습니다. 그때는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접속이 안 되면, 요즘 온라인으로 훨씬 더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많이 들어가시지요.

○ **강유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까지 사실 적극 수용 의견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도서관장께서, 사실 이것 제가 민원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불편함을 느껴서 발의했던 거거든요. 관장님이 먼저 해 주셔야지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오경** 마무리하셨습니까?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예술인복지재단 직무대리님, 한번 사진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 사진이 뭐 하는 사진 같습니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예술활동 중 보고 내용의 사진 제출……

○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진이 어떤 활동 하는 사진 같아요? 예술활동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술집에서 소주 마시면서 회식하는 사진 같아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술자리에 있는……

○ **김승수 위원** 그렇지요? 이게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활동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입니다. 제목은 협업활동 계획서 논의한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보더라도 그렇게 계획서 논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은 국비가 매년 81억 정도 투입이 되지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예.

○ **김승수 위원** 그래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경력개발까지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예술인들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신축성 있게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예술활동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활동보고서를 보더라도 기가 막힙니다. 보면 ‘전설의 중국집인 신락원에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배가 터지게 먹은 걸로 기억한다’, 이게 예술활동 보고서입니다.

뒤에 보면 순천의 아름다운 해변의 모습을 음악으로 담을 수 있는 재즈음악을 리서치했다는 것, 뒤에도 한번 가 보십시오. 보면 ‘순천의 대표적인 해변인 와온해변을 방문했다. 활동가가 쓴 글들과 유튜브 인터뷰를 서치했다. ‘그림책 상상 그림책 여행’이라는 책을 봤다’.

아무리 예술활동에 진짜 융통성을 부여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제재를 하고 폐널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답변……

○ 김승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이 쓸모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예술인들, 팀들 또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수 사례들인데, 치매 어르신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예술인들이 통합예술 프로그램 진행한 것도 있고 또 발달장애 청년들을 위해서 예술놀이 키트를 제작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바람직한 모범적인 사례들은 확산을 시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활동과 무관한 것들은 좀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또 넘겨 보십시오.

또 하나 문제는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생계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한테는 굉장히 요긴한 지원이기 때문에. 보면 경쟁률이 5 대 1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려 10년 동안 계속 선정되는 사람들도 있고, 연 3회 이상 선정된 사람의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이야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목적을 왜곡해서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좀 배제를 시키고 또 신규 참여자들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제도를 좀 발전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예, 알겠습니다.

#### ○ 김승수 위원 들어가십시오.

계속 이렇게 지적만 하는데 이제부터 칭찬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앞에 지금 여러 가지 굿즈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백제 금동대향로가 보이고요. 여기 소주잔도 보이는데 이게 김홍도 작품의 평안감사향연도에 있는 그림들을 그려 놓은 소주잔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이 가장 마시기 좋은 소주잔 온도가 되면 색깔이 컬러로 변합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옷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보통 박물관 그러면 관람객들이 좀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아주 세계적으로 유수의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이 많습니다만 관람객이 좀 없고 또 관람객들도 보면 연령층이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초등학생들 견학 오거나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 난 걸 보니까 중국의 박물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면 사람이 넘쳐납니다. 이런 박물관에서 문화재를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것을, 이게 굿즈하고 뮤즈엄과 같이 합성을 해서 뮤즈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지금 박물관에서 파는 뮤즈에 젊은 청년들이 열광을 해서 중국도 이렇게 많이 몰리고, 중국의 중앙박물관은 하루 매출액이 1억이 넘는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인가 싶어서 우리나라로 조사해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중앙박물관 보니까 뮤즈가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굿즈 판매액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데 우리 박물관에서 판매하는 굿즈 판매액이 연한 149억 정도 이렇게 되고 또 이 부분이, 작년도 판매액이 그런데 벌써 올해 9월까지 판매액을 비교해 봄도 거의 작년 판매액과 비슷하다는 거지요.

지금 왜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느냐? 아주 세련되게 만들었고 또 이게 활용도가 높은 그런 쪽으로도 디자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키홀더도 있고 또 전화 충전기도 있고, 이게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잔, 막걸리잔 이런 것들은 박물관이 아닌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선풍적으로 팔리고 있답니다. 오픈런이 있을 정도로 박물관에서 이런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게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니까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를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일부 박물관이 아닌 인천공항이나 더현대몰 이런 데서 잠시 이렇게 팔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서울역이라든지 다른 지방공항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가는 이런 지역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주면 상당히 외국인들한테 판매도 높일 수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진품을 보려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도 더 많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중앙박물관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할 계획이 없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지금 저희들 뮤즈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1단계로서는 저희들이 지방박물관 10곳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도 더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단기적으로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공항이라든가 그리고 백화점 이렇게 인기 좋은 곳도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박물관이 자체 수입 가지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공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도 많고 그러는데 이런 굿즈 상품이 아직까지는 지방박물관에는 제대로 확산이 안 되거나 아예, 보면 지방의 국립박물관에도 이런 굿즈 상품들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협업하거나 공유해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또 박물관을 찾게 만드는 그런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진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 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5도 이상의 강진이 발생해서,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첨성대도 조

금 기울어졌고 여러 가지 문화재들에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또 열암곡 마애불상 같은 경우에도 지면과 한 5cm 정도 떨어졌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훨씬 더 지반으로 붙는 속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동해안이 지진 위험지대라고 그랬었는데 몇 달 전에는 전북 부안에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야외에 있는 문화재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이렇게 야외 문화재뿐만 아니고 박물관 안에 있는 또 실내에 있는 문화재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현재로서 저희들은 일본과 달리 지진에 대한 대비가 없었는데요, 최근에 빈번하게 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 **김승수 위원** 저번에 경주는 지진 이후에 이것을, 지진 대비 시설을 면진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경주는 면진시스템이 거의 한 90% 가까이 갖춰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20%, 몇몇 박물관은……

○ **위원장대리 임오경**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수 위원** 몇몇 박물관은 아예, 면진시스템이 없는 국립박물관도 있을 정도입니다. 전주박물관, 부여박물관 다 국보나 보물들이 있는 그런 박물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7도 이상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는 면진설비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최소한 중요 보물에 대해 가지고는 그 정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빨리 면진설계, 면진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저희들이 중앙박물관은 10억 정도 그리고 기존의 소속관 2개 해서 39억~60억 정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예산이 반으로砍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급한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하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배분하고 또 저희들이 국회에도 신청을 해서 앞으로 예산도 늘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안전시설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승수 위원** 하여튼 국보, 보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훼손이 되면 진짜 가치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 보물만이라도 신속하게 면진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등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덕 위원**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 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관장님, 올해 역사박물관에서 책 한 권을 발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100년 통사’인데요, 1948년부터 2048년까지 역사를 기술한 건데, 맞습니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그렇습니다.

○ **김윤덕 위원** 저자는 김진현 씨고요,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논의하는데 책의 시작이 1948년입니다. 이게 1948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아마 그 저자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아버지를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 기념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연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아니, 2048년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2048년은 아마 앞으로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담아서 한 것으로……

(임오경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김윤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는 1945년부터 시작되었고, 그렇지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그렇습니다.

○ **김윤덕 위원** 1919년 임시정부도 그 역사의 바탕에 있는 거고?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그렇습니다.

○ **김윤덕 위원** 1948년 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인식하는 게 뉴라이트 사관 아닙니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그렇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렇지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 **김윤덕 위원** 두 번째로 이 저자께서, 이 책에 삽입되어 있는 지도들을 보니까 독도가 다 빠져 있어요. 독도가 빠진 이유는 지도가 작거나 독도와 상관없어서 뺐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저자가 인용한 조지 프리드먼의 ‘100년 후’라는 책에 보니까, 이 원본을 제가 구해봤거든요. 그런데 원본에는 독도가 있어요, 섬이. 그런데 김진현 저자가 쓴 역사박물관이 공식적으로 발간한 이 책에는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독도를 표기 안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도에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까, 독도 빠지는 게? 저는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독도 일본에 넘겨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책 내용을 보니까 ‘한국의 독특한 초고속 경제성장의 기반에는 일본이라는 변압기의 존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승만과 4·19, 박정희는 민주사회 기반 구축기로 재평가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는 그 후과, 즉 좋지 않은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이 등장했다.

이것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후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까, 박근혜의 무능과 실정으로 탄핵이 되었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

각하세요? 이걸 역사박물관이 발간한 목적이 있습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을 덮어 주고 싶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게 기술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저자가 대한민국의 특수한 압축성장을 설명하면서 일부 논란이 되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윤덕 위원** 또 얘기할까요?

‘1980년 5·18은 확실히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그 결과가 국가에 너무나 유해한 반동이고 반역이었다’, 그래서 저자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전두환을 겨냥한 거랍니다. 그 저자 바보 아닙니까? 1980년 5·18이 어떻게 전두환을 상징합니까? 이 나라 민주주의의 상징, 광주 민주항쟁의 상징 아닙니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 광주 민주화운동이 확실히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그 결과가 국가에 너무나 유해한 반동이고 반역이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간심의위를 통과한 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대중적 역사교육물을 제작하는 그런 대중교양서적입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의 역사박물관 기관에서 5·18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유해한 반동이었다, 반역이었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면 역사 왜곡을 넘어서서 그게 반역이고 반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5·18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관장님께, 그것 대책이 아니에요. 이런 책이 다시는 출간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제대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역사박물관의 이름으로 나가는 책에 대한 발간 검열 시스템, 점검 시스템—표현이—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이 발간된 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수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놓쳤다고 해서 관계 공무원 징계해야 된다, 심의위원들 다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최소한 이 책을 다 수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논란이 되는 부분과 독도 표기 등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고, 현재 우리 박물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e-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수정을 하고 또한 다른 부분도 저자와 협의를 통해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수정이 안 되면 수거해야 되고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는 그 후과, 좋지 않은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이 등장했다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촛불로 탄핵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들어가세요.

문화예술위원장님, 상명대 천안 산학협력단 교수가, 창작 사례비 폐이백 행위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 **김윤덕 위원** 그 진행 과정에서 지금 학생들 보호 요청 이것 제대로 되고 있나요?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10월 4일 날 제보를 받았고요. 즉각적으로 저희가 학생들 면담을 했고 그 결과 폐이백이 확실해서 상명사대에 통보를 했고 상명사대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받으면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겁니다.

○ **김윤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A 교수가 대단한 분이세요. 총장, 부총장하고 친하기 때문에 제보자 색출하겠다, 졸업 안 시키겠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런 얘기는 저희가 미처 못 들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리고 폐이백이 일어나면 이것 범죄행위입니까, 아닙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범죄행위입니다. 바로……

○ **김윤덕 위원** 고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당연히 형사고발 시킵니다.

○ **김윤덕 위원** 형사고발 하시고……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책임지고 그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학생들 보호하고.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알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리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요.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끝까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이 문제는 끝까지……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끝까지 관리하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위원장이 별도로 저희 의원실에 어떻게 처리되고 마무리되었는지를 보고해 주십시오.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알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님, 올해 7월 8일에 취임하셨습니까? 부임하셨습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 **배현진 위원** 지난 21대 국회에서 중앙박물관이 역사 왜곡 논쟁에 계속 휘말렸어요, 역사 왜곡 전시 논쟁.

(영상자료를 보면)

2020년에 일본 식민사관 전시, 2021·2022년에는 고구려·발해사 등을 제외한 유물을 출품한다든가 동북공정 지도를 전시했다가 총 세 번의 질타를 받고 2022년 예산 25억 삭감 당한 그런 수모 겪은 것 아시지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 배현진 위원 관장님 오셨으니까 특히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걸맞게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저녁에 하나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국립 박물관 세 번이나 그렇게 삼진 아웃 당해 가지고 예산도 25억 전시예산 삭감당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잘 하시겠지 하고 저희 의원실 직원들이랑 함께 한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상설전시관이, 구석기·신석기시대부터 우리 대한제국까지 죽 전시되어 있는 상설전시관 한번 가보셨습니까, 관장님?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 배현진 위원 어떠셨어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우리 전체 역사를 기술하고 있고 우리 민족사적 시각에 잘 따른 일이라고 하지만 직원들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배현진 위원 그런데 제 눈에 뭐가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발해관에 들어가니까 보시는 바대로, 가장 메인 패널에 발해 역사의 핵심을 잘 써 놨다고 해서 저도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설명에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설명이 들어 있는데 영문 설명을 보니까요. 중국어, 일본어, 이 3개 국가의 언어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특히 맨 앞줄의 번역을 보시면 ‘고구려를 계승하는 발해’, 남북국시대 부분이랑 마지막 문단에 ‘발해 지배층은 건국 당시부터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생각’, ‘고구려의 전통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 이 세 문장이 쭉 접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본에서는 고구려라는 단어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랬을까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첫 번째 패널에 빠졌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패널의 제목이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왜, 번역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핵심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고구려라는 단어가 다 빠졌을까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세 번째 내용에 있기도 하지만 여기는 국문이 있고, 외국어는 축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세심한 배려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축약을 하면 사족을 걷어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발해관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 ‘고구려의 전통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 이것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 아닌가요?

지금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설명하려고 만든 부분이지요? 우리 국민들은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이것 역사책에서 다 배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들어갔어야 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첫 번째 패널에서는 미진한 측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 배현진 위원 그런데 옆에 조그만 4개 패널에 써 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한 거지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 배현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다 봤어요. 저희가 가서 다 보고 직접 다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 영어 설명에는 있지만 중국어, 일본어 패널은 없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계속해서 발해사를 자꾸 가리려는 의도적인 전시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문제가 그 부분에서만 자꾸 발견되고 있어요, 관장님.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역사를 지우고 중국의 말갈족을 계승한 나라가 발해다라는 문화공정, 동북공정, 역사공정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우리의 역사적인 이런 사실을 더,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 많이 있다고 조금 전에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통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사족입니다마는 이 발해실이 2005년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제가 관여를 했고 그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수정하셔야겠지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첫 번째 패널은 당연히 수정하고요.

○ 배현진 위원 즉각적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두 번째 패널에서 나오는 한자 원점 표기라든지,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어플에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개관 패널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하게 마치는 즉시 수정해서 왜……

○ 배현진 위원 영어, 중국어, 일어 모든 패널에 정확히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은 나라’라는 원래 한국어본에 있는 설명 반드시 제대로 달기를 바랍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하고 즉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두 번째는요 도슨트, 그러니까 전시 투어 프로그램이 있지요,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있습니다.

○ 배현진 위원 이 프로그램 동선을 몇 년에 걸쳐 한 번씩 바꿉니다, 박물관에서. 마지막으로 된 게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때 이 동선을 바꿨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도 발해관은 단 한 번도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중국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어제 뉴스를 통해 나간 게 발해관은 들러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중국에서 오신 중국인 관광객들은 발해가, 유구한 고구려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요 유물 위주로 1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해보다는…… 발해가 빠졌다고 하셨는데요. 그때는 고구려, 특히 광개토대왕의 명문이 새겨진 유물을 위주로 해서 전체 기획관을, 전시실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고요. 그것 말고도 가치도……

○ 배현진 위원 중요 유물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아니, 중요 유물이 아니고……

○ **배현진 위원** 그런데 그 동선에요…… 관장님,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 **배현진 위원** 도슨트 동선에 통일신라와 발해 유물이 가득한 통일신라관과 발해관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통일신라 역사는 가장 화려한 유물들이 많은 관 아닌가요? 발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려는 것은 전시를 좀 국립중앙박물관답게 섬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예사들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한다거나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고 해서 또 예산 삭감 당하는 그런 수모 겪고 싶지는 않으시겠지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 **배현진 위원** 즉각 수정하시고 모든 전시관이 골고루 안내될 수 있도록 동선도 다시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제가 섬세하게 다시 한번 다 점검해서 염려하신 바가 다시 나타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당부드리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역사적인 가장 큰 논쟁은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여기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저희 박물관의 기조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형배 위원** 한수 관장님 나오시면 시작할게요.

앞서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 책의 78쪽에 보면 4·19 혁명에 대한 기술이 나옵니다. 이것 잘못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셨지요, 이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그렇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중에 제일 안타까운 건 이게 저작권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있는 것 아닙니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그렇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저자한테 물어봐서 고치도록 하겠다 그랬습니까? 이것 우선 당장 회수해야 되고,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e-북에 그대로 있어요. e-북에서 수정하고 박물관이 책임 있게 이걸 회수하고 조치해서 역사박물관에서 발행한 책의 품위에 맞도록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기술하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알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이것 바로 회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김희섭 중앙도서관장님, 근래 뉴라이트 논란 교과서 들으셨지요?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뉴스 통해서……

○ 민형배 위원 교육위에서 논란이 된 것 들으셨지요?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 민형배 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된 게 이 책에 대한 납본 문제입니다. 이 납본 잘못된 거지요?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저희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이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것 안 보셨군요, 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 책이 아시는 것처럼 판매용이 아니고 복본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납본으로 하고 이걸로 실적을 인정받아서 ISBN을 받아서 그리고 그걸로 검정교과서를 자신들이 발행·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어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는 뭘 잘못한 겁니까? 납본을 아무 검토 없이 그냥 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저희들은……

○ 민형배 위원 있지도 않은 책을……

여기 규정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3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공중 배포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적 출판물 이것 안 된다. 그런데 이게 공중 배포를 안 했고 2007년에 나온 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제출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정가 표시는 돼 있는데 판매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것을 그냥 실적으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걸 누가 해 줬나 하면 국가기관이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라이트 검정교과서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발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이것 조치해야겠지요, 취소하고?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적인, 그러니까……

○ 민형배 위원 아니아니, 지금 이 규정에 보면 중앙도서관을 이분들이 속였고 업무를 방해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것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니요’로만 해 보십시오.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저희 규정상……

○ 민형배 위원 아니, 규정상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여 드려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PPT 좀 띄워 보시지요.

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가, 바, 자에 제외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제외됐어야 됐는데 제외를 못 시킨 거예요. 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저희들은 취소 규정도 없습니다.

○ 민형배 위원 아니, 규정이 없으면 빨리 규정을 챙겨야지요. 취소 규정이 없으면 취소를 못 합니까, 이게 불법인 줄, 위법인 줄 뻔히 알면서? 물론 조치하십시오. 이 책은 납본될 수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속이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속고 그런 과정이었지요. 취소하세요, 빨리 이것. 취소 방법을 찾으세요.

지금 답변 못 하시겠다면 국감 전까지 저희 쪽에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아셨지요?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알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이게 너무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번 국정감사에.

그다음에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정용석 사장님.

정 사장님, 저 사진 한번 봐 보실래요?

맞지요, 본인?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 민형배 위원 저때 무슨 얘기 나누셨나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 뒤에……

○ 민형배 위원 기억 안 나시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 민형배 위원 지금 저 행사 국가유산청에서 했다고 저한테 지난번 국감 때 최웅천 청장이 그러셨는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문화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문화재청이에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민형배 위원 이렇게 손발을 안 맞추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엊그제 현장시찰 갔을 때는 문화재청 장님이 비서실이라고 그랬다는 데……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PPT 한번 보여 줘 보실래요, 식순 나와 있는 것?

‘진행 정용석 선임행정관’ 보이시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때 진행하셨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 민형배 위원 문화재청 행사를 대통령비서실이 진행을 합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문화재청 행사의 여사님 참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러면 저기 장소 신청 누가 했습니까? 비서실에서 했잖아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 민형배 위원 아니, 이 행사 진행을 하신 분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비서실에서 하셨대요. 장소 신청을 비서실에서 하고 여사님 온다고 그런 말도 저쪽에다 하고.

협의를 계속 하셨을 것 아니에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주체가 문화재청이라고 그러세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게 아마 무형문화재……

○ 민형배 위원 알아요. 그런 것 다 알고 있는데 저 행사 주최를 대통령비서실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한 겁니까 여쭙잖아요. 문화재청장은 그냥 비서실에서 했다고 그러시던데? 처음에는 문화재청 주최였다고 했다가 다음에 다시 대통령비서실이었다고 하는데 어디서 한 게 맞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처음에 기획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건 아마 문화

재정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민형배 위원 아니, 기획을 한 게 아니라 행사 주최를 어디서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왜들 이렇게, 유산청장도 거짓말하시고 사장님도 거짓말하시고,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정부기관이 다 거짓말을 합니까? 숨기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비서실에서 한 거다, 그래서 여사가 가서 격려도 하고 했다 그러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서로 거짓말을 하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저한테 제출해 왔냐 하면 대통령실과 국가유산청 담당 부서에서 직접 수행했다, 별도 용역 없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런 행사를 용역에다 맡기는지, 그것도 이상하지만. 이번에는 둘이 같이 했다고 또 나와 있어요. 주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주최를……

○민형배 위원 아니, 주최를 안 했는데 선임행정관이 진행을 합니까, 저렇게 행사 진행을, 주최 측도 아닌데?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아시는 대로 다 정리해서 국감 전까지 꼭 알려 주세요.

정병국 위원장님, 보스턴 미술관 2009년에 다녀오셨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다녀왔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리하고 사리구 분리 반환 의논이 있었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때 문화재청장이 또는 문화재청에서, 장관 시절이니까요. 장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닙니다. 장관 시절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장관 시절 전에 의원 시절이었겠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민형배 위원 저 사진 보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저기 지금 계시는데 저때 문화재청이 사리와 사리구 분리 반환에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 당시에는 반대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장관이 되셨어요. 저것 문화재청에다가 반환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문화재청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반환을 위해서 작업을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반대해 가지고 사리 반환이 안 된 거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불교계에서는 강력히 요구가 있었고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사리를 반환해 오자라는 요구는 있지만 문화재청은 이게 문화재로서 보면 사리와 사리구를 분리해서 오는 건 안 맞다 이래서 반대한 거지 않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근래에 국가유산청이 입장을 바꿔서, 정책기조를 바꿨어요. 분리 반환 됐다는 건 아시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 **민형배 위원** 김건희를 뛰우려고 그렇게 하던데 이런 게 국정개입이고 국정농단인데, 보시기에 지금 어떤 겁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민형배 위원** 그때 장관 전에 가셔서 노력을 하셨고 장관 때 지시를 했는데도 분리 반환 하자고 하셨고, 이번에 유산청이 갑자기 불교계하고 해 가지고 분리 반환을 받았고, 이제 그걸 빌려 오겠다고 하고 있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제가 듣기로는 보스턴 박물관 측에서 전체를 반환하는 것은 자기들이……

○ **민형배 위원** 자기를 소유니까 못 주겠다는 거고.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못 준다라고 했는데……

○ **민형배 위원** 사리는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돌려준 것 아닙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이번에 사리를 반환하고 나서 장기임대 형식으로 지금 이것을……

○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함도 돌려주는 이런 협상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김건희 여사가 나서면 이렇게 국정이……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런데 우리가 조선의궤, 불란서로부터 들여온 것도 하나의 사례였지 않습니까?

○ **민형배 위원** 아니, 어쨌든 문화재청의 원래 원칙을 바꿔서, 김건희 여사가 나서니까 이렇게 국정기조가 바뀐단 말이에요. 국가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를 보시면서, 문화부장관을 지내셨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저는 어느 분이 나서서 했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를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 하는 차원에서의 접근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누가 나갔느냐 이건 둘째 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 **민형배 위원** 그만하시지요. 절묘하게 빠져 나가시는데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말하기 곤란하다라고 하시는 게 낫지……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니, 곤란한 게 아니라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 **민형배 위원** 왜 그때는, 장관 시절에는 문화재청이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는데 그 문화재청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김건희 여사가 나서 가지고 이것을 사리만 가져왔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다고 그하세요,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 당시에도 양론이 있었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런데 국가 정책으로 원칙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바뀐 거고.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니, 국가 정책으로 원칙으로 정한 적은 없어요.

○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옹호하고 나서시는 게 좀 옹색해 보입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 **민형배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원칙은 그 당시에 정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욱 위원** 한글박물관장님 나와 계시지요?

앞으로 잠깐 좀 나오시지요.

서울 서초을의 신동욱입니다.

화면 바로 하나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워낙 유명한 사진이어서 지금 다 아시지요? 이게 김정숙 여사께서 착용하셨다는 것, 지금 이게 한글박물관에 있습니까?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신동욱 위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결론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 볼 게요.

이런 경우에, 특정 업체가 제작한 옷이잖아요?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 **신동욱 위원** 영부인이 입었다고 해서 이게 박물관에까지 가지고 있을 이런 가치가 있는 옷인가요?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사실 영부인이 입으셨던 건 큰 고려사항은 아니었고요. 한글 문양 그리고 제작했던 디자이너분의 명성 그리고 샤텔이라고 하는 제작회사 그 세 가지가 아마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샤텔로부터 기증받으신 거고요?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 **신동욱 위원** 그러면 기증을 하겠다라는 의사는 문체부로부터 전달을 받으셨나요?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당시 그렇게 받은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 **신동욱 위원** 문체부로부터, 보고받을 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시를 받았다고 하던가요?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샤텔 측에서 먼저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의 어떤 관계자분께 한글재킷을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 왔고 그 통보를 받은 문체부 직원이 아무튼 그건 한글문양 재킷이기 때문에, 의상이기 때문에 한글박물관이 낫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 **신동욱 위원** 어쨌든 그래서 2021년도 6월부터 수증 절차를 밟기 시작했는데 당시 박물관 수증심의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저희가 봤더니 ‘국빈 방문 때 영부인이 착용한 바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착용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것과 같은 옷이라고 이해를 하신 겁니까?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당시 저희 직원들하고 수증심사에 참여했던 분들은 당연히

여사께서 국빈 방문 당시에 착용했었던 옷을 전제로 해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걸로 나중에 판명이 났지요, 이건 아닌 걸로?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신동욱 위원** 언제 아시게 됐습니까?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22년도 3월에, 저희가 수증 이후에 인천공항에서 수증받은 작품을 공개했는데 그때 일부 민간 쪽의 언론과 네티즌분들이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에 소개됐던 의상과 인천공항에 전시된 한글박물관 수증 의상이 서로 문양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서로 다른 의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처음에는 확인을 해 봄아 되겠다라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신 거고요?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그걸 못 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그러면 김 여사께서 입으신 옷이 한 벌 있고 또 한글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옷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최소한 세 벌 있는 것으로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확인을 하신 거지요?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신동욱 위원** 그 세 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나머지 한 벌은 22년도 10월에 프랑스에 있는 우리 한국문화원에서 한글디자인전시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 한글의상을, 샤텔에서 제작한 한글의상을 전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신동욱 위원** 수증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불란서 한국문화원에서 전시회를 했다 이거지요?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의뢰를 했었지만 저희가 아직은 본품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통보하니까 당시 문화원장께서 직접 샤텔 층에 접촉을 해서 그 작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박물관에 가지고 계신 것……

    다시 한번 좀 올려 주실래요, 조금 전 사진, 3개 있는 것.

    그러니까 김 여사께서 입으셨던 옷이 있고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전시를 한 옷이 있고 인천공항에서 전시한 옷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옷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인천공항 전시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은 별도로 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 전반적인 사정은 언제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제가 부임한 이후에 내부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아마 대략 시기적으로는 작년 정도에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공개된 건 없고요, 그 사이에? 세 벌이었다라는 사실이 공개된 건 없고요?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없습니다.

○ **신동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옷의 박물관 전시의 가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샤넬이라는 프랑스 명품업체가 만든 옷을 왜 김정숙 여사께서 입게 되었고 그것이 왜 우리 박물관에까지 오게 됐는지 또 진짜 입었던 그 옷이 아니고 다른 옷이 제작돼서 우리 박물관에까지 오게 됐는지 이 과정이 굉장히 사실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벌은 행방이 있는데 첫 번째 옷은 어디로 갔습니까? 직접 입으신 옷의 행방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저희 박물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신동욱 위원** 샤넬로 돌려줬다 이렇게 당시 언론에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들어 본 바가 없습니까?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4월에 한국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샤넬 측에서 메일로 자기네들이 지금 샤넬 역사관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답을 했던 것으로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동욱 위원** 그래서 이 과정들을 죽 돌아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김정숙 여사께서 샤넬의 옷을 입어 주고 샤넬은 그 옷을 한국의 역사박물관까지 보내고 이런 과정에 문체부가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당시 청와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양이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는 문다혜 씨와 금전 거래가 있었다 이런 의혹도 있고 해서 출국 금지 상태여서 이번에 저희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아마 증인 신청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 양이네스라는 분이 누구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전혀 모릅니다.

○ **신동욱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파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화면 하나만 또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게 당시 관련된 여러 분이 아마 참가해 있었던 단톡방 같은데 이 양이네스라는 분이 중심이 되어서 뭔가 대책을, 당시 언론에 상당히 논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재킷은 어디 있는지 어떻게 기증됐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말 맞추는 정황들이 SNS에 상당히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시에 김정숙 여사께서 너무 많은 명품 옷이라든지 사치가 심하다 이런 것들이 국내 언론에 논란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옷을 입으시고 박물관에 기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뭔가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한글박물관에 기증까지 하게 된 이 과정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경우에 박물관에까지 기증할 가치가 있는 옷인가라는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저희 전문적인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분한테 여쭤본 결과로는 일단 여사께서 착용하셨던 여부와 상관없이 한글박물관에서 충분히 수증할 가치가 있는 그런 의상 작품인 것으로 저희는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동욱 위원** 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규정 14조(수증의 제한) '수증 경위나 출처 등의 논란이 있을 경우에 수증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조항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논란

이면 뭔가 좀 검토를 해 보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위작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샤텔 측에서 분명히 기증 의사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동욱 위원** 아니, 위작이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에 기증을 받으실 때는 김 여사께서 착용을 하신 것 그것을 전제로 해서 받으신 건데 여러 별이 있다고 그러면, 이를테면 저희가 같은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유명한 명사가 입었다, 그 옷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똑같은 옷을 백 벌쯤 만들었는데 그 다른 옷을 갖다 놓는 게 박물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옷이 유명해지면 제가 입었어야지 유명해지는 것이지, 똑같은 브랜드의 다른 옷을 그 박물관에 갖다 놓으면 그건 가짜 아닌가요?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이 경우에는 제작자이셨던 그 디자이너분의 명성과 그분의 작품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됐던 것 같습니다.

○ **신동욱 위원** 아니, 그랬다면 그분의 옷을 처음부터 들여왔어야지 김정숙 여사가 입어서 문제가 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일종의 알리바이 만들듯이 한글박물관에 가져오는 과정 또 원래 옷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박물관 측에서 그러면 진본은 어디에 있는지, 이 과정에 문제는 없었던 것인지, 이게 몇 벌이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비록 아주 지엽적인 문제라고 합니다만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가요?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정황상으로 여사께서 입으셨던 옷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한 점은 저희가 같이 소홀히 했던 점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한글 문양이고 세계적인 디자이너 그리고 세계적인 의류업체 이 세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당시 수중을 진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들, 이게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서 한글박물관이 기증받을 당시에 한글박물관과 문체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종감 전까지 저희 방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준비하겠습니다.

○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현 위원** 박수현입니다.

김일환 한글박물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샤텔 옷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관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실에 더해서 제가 경험한 일들을 설명을 드리니까 잘 들으셔서 전체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 **박수현 위원** 지금 말씀드린 2018년 10월에 김정숙 여사는 프랑스를 방문했지요. 그

참석했던 행사의 취지에 맞도록 행사 주최 측에서 저 준비된 옷을 입어 주실 것을 요청했고 그래서 저 옷을 입고 행사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났을 때 당연히 그 옷은 행사 주최 측에 반납하는 것이고 그 옷은 당연히 반납되었고 그 옷은 국내에서 논란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언론이. 샤넬 본사에 그 당시 행사 때 입었던 옷은 보관돼 있다는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옷은 샤넬 측에 물어보면 되는 것이라고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샤넬의 수석디자이너께서 자기 자신의 작품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 이후에 저희가 귀국했을 때 청와대 측에 계속 그 입었던 옷을 김정숙 여사에게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선의와 정성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받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이러이러한 법률적 위반행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설명을 여러 차례 정중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수석디자이너는 국내 법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처럼 잘 이해를 못 하니까 다시 꼭 좀 받아 달라라고 하는 의사를 가져왔고, 그것이 그 수석디자이너의 명성과 자부심에 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청와대와 샤넬 또 수석디자이너 측이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던 끝에 그렇다면 이 한글 문양을 제대로 잘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수석디자이너의 선의와 이런 뜻도 잘 살릴 수 있는 이런 타협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찾아낸 방법이 그러면 새로 제작을 해서 한글박물관에 기증을 한다고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한글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샤넬 측에 그런 방법들을 알려 준 것입니다. 제안한 것이지요. 그래서 한글박물관에 새롭게 제작된 그 옷이 기증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당시 어떤,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언론이 원래 입었던 옷과 한글박물관에 기증된 옷이 다르다 그러면서 마치 무슨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청와대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기사를 썼어요, 설명을 했는데도.

그래서 저도 오늘 질의할 게 많으니까 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과 제 경험으로 지금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드리니까 잘 조합을 해서 전체의 모습을 구성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들어가시지요.

중앙박물관장님을 비롯한 박물관장님께 함께 말씀드립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는 한 조각의 사료와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가의 사관을 통해서 과거 전체의 모습을 그려내는 어떻게 보면 해석의 영역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한 조각의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대역사학의 확립자라고 하는 랑케는 ‘오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바로 이러한 역사를 다루는 분들입니다. 사실에 바탕을 둔 역사를 국민과 후세에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박물관의 관장님들이시고 가족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께서 지

적하신 대로 무엇보다 사실을 근거로 역사를 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 않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당부 말씀으로 드리면서 오늘 제 질의를 좀 한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한수 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바로 근현대역사 자료의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지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질문을 할 텐데 바로 그러한 근현대역사에 관한 조사·연구의 임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관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 보시고 마지막에 한 가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좋겠어요.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4년에 제정된 문체부 소관의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제2조제1호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또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다.

관장님, 혹시 우리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시작, 기점을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현재 대부분의 통설에 의하면 1910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는 독립운동 그리고 그 이전의 외세에 저항하는 운동들은 국권회복운동, 국권수호운동 이렇게 하고 그 두 가지 다 합쳐서 광의의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19세기 말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이 독립유공자를 서훈하면서 62년째 변하지 않는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바로 이 동학혁명에 참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 문제를 다루는 태도인데요,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독립운동으로 인정해서 참여자를 서훈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학계와 시민社会의 오래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특별법에서 본 대로 일제의 침략, 국권 수호, 항일무장투쟁이라고 명시해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독립운동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지금 관장이 말씀하신 1905년의 을사늑약이나 1910년의 강제 한일합병보다는 더 확장된 1895년에 국모 시해 사건으로 일어났던 을미의병까지만, 1895년까지만 바로 일제의 국권 침탈에 또는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한 독립운동으로 보고 을미의병 참여자는 서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몇 달 전, 1년 전 1894년에 분명하게 일본군이 경복궁을 강제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당시 경복궁을 경비하던 우리 조선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해산하고 자기들이 보초를 서면서 고종을, 쉽게 얘기하면 거의 포로 상태로 만드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기 위한 그런 행위이고, 이 경복궁 점령 사건

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 1894년 9월에 일어났던 2차 봉기는 지금 모든 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항일무장투쟁으로 이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2023년 작년에는 이 기록이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잖아요. 세계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장께 여쭤보고 있는 것이 이 독립운동의 기점이 1895년 국모 시해로 일어났던 을미의병에서 더 확장이 되어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로까지 독립운동의 기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보훈부가 그 규정을 바꾸어서 이제 이 분들에게 서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일본의 역사학자마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관장께서, 조사연구를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좀 해 볼 의향이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사를 넘어서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전에 우금치 유적이 있는 공주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를 잘 알고 있고 우리 박물관의 조사연구 기능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딱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7일 어제 본 위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관련 검토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PT를 좀 띠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을 서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재평가된 역사적 시각과 상충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과 이후의 의병운동 그리고 독립운동 사이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과 단절된 사건으로 보는 것은 역사적 연속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법적, 행정적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단순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틀에 맞추기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해석 및 검토가 필요하다.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반외세, 반침략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재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한국문학번역원장님, 번역원에서 총 76건의 한강 작품 번역 출간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맞습니다.

○ **임오경 위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문화의 해외 진출 확대가 새로운 화두로 제시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지원과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감사합니다.

○ **임오경 위원** 하지만 저는 한국문학번역원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블랙리스트의 역사를 잊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에 문체부가 발간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원장님,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문체부, 번역원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하달 구조가 있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제가 그 조사결과를 봤습니다.

○ **임오경 위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문체부가 번역원에 해외교류지원사업 전반에 특정 작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파견 불허 지시, 즉 배제 지시를 하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맞지요?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 **임오경 위원** 당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장 및 주무관은 특정 문인들을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배제하기 위해 파견 작가 명단을 미리 문체부에 보고하고 검토받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번역원에는 2014년 총 11건의 교류사업 중 1건, 2015년 총 61건의 교류사업 중 5건, 2016년 총 69건의 교류사업 중 9건 개별 사업의 배제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총 15건 하달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 **임오경 위원** 문인 약 30여 명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 **임오경 위원** 여기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포함되어 있었지요?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배제 지시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한강 작가가 참여한 2014년 영국 도서전, 2016년 프랑스 파리 도서전, 2016년 베를린 문학축제 모두 번역원에 대한 한강 작가 배제 지시가 있었습니다.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 **임오경 위원** 안타깝게도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업 실무를 맡았던 현 1차관, 청와대 행정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문체부 차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진상조사위원회 백서에 104회에 걸쳐서 이름이 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력자들의 국정농단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한국문학번역원과 문화예술·체육계에 블랙리스트의 어두운 그림자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희가 다행히 배제를 많이 실행하지 않아서 국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예를 들면 그런 초청은 국제기관에서, 외국기관에서 오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거부를 한다 그러면 그건 좀 국제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 **임오경 위원** 지금 말씀 잘 귀담아들었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현장에서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감사합니다.

○ **임오경 위원** 다음은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이게 아이러니해서…… 좀 들어봐 주세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임오경 위원** 최재혁 방송기획관, 2013년 없었던 자리를 다시 10년 만에 하종대 원장이 부활을 시킵니다. 그리고 공모를 하지요. 서류 점수 최하위인데 문체부 공무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몰표를 줍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31일 ‘신명나는 우리 소리’, 지금 이 KTV 문제의 화제에 관련된 최 1순위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끝나자마자 2023년 12월에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승진을 해서 갑니다.

행사장은 무관중이었고, KTV 아래 8600만 원 공연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자료 요청에 의해서 무관중으로,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적 없다. 무관중이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관중 녹화인데 유병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그리고 지금 정용석 사장님 또 신수진 용산 대통령실 문체비서관, 황성운 용산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10월 18일 행사 보고를 위해서, 정용석 선임행정관에게 행사 보고를 위해서 용역업체 그리고 최재혁 방송기획관, 조대익 PD…… 정용석 선임행정관에게 행사 보고를 하고 함께 청와대 관저 사전 답사까지 합니다. 그렇게 비서관으로서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서 행사 보고받고, 아니 KTV가 8600만 원 들여서 무관중 공연한다는데 왜 보고를 받고 왜 현장 답사를 갑니까? 이것을 지금 위원들한테 이해하라고 계속해서 알리바이 만들어서, 입 맞춰서 와 가지고 지금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네요. 10월 20일 KTV 내부 공문에서는 각국 주한대사 부인들 초청, 10월 26일 대관 신청 요청, 10월 27일 문체부 승인 받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소 대관 신청은 2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규정, 절차 다 무시하고 해요. KTV, 이것 감사원 감사입니다. 이것 다 징계감입니다. 알고 계세요.

10월 30일 행사 준비, 10월 31일 녹화 시작. 무관중인데 원형 테이블을 깁니다. 기가 막히게 예쁘게 잘 깔아졌더라고요. 거기에 원형 테이블만 깐 게 아니라 꽃장식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의전인력 15명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앰뷸런스 요청을 한 후 또 취소를 합니다, 앰뷸런스는. 또 네 군데를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공연기획사 그리고 렌털 방송장치 두 군데, 공모도 아닌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물었더니 하종대 원장이 최재혁 기획관하고 둘이 했대요. 웃기지 않아요?

또 웃긴 게 무관중 녹화라고 관중 없이 녹화했는데 VIP 행사 관련 내부 문건이 드러나니까 갑자기, 초청한 적도 없는데 국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영부인이 갑작스럽게 왔다…… 하종대 원장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국악공연 공연하는 것 녹화 보고 있

는데…… 무관중인데 하종대 원장이 왜 거기에서 앉아서 공연을 보고 있습니까? 정용석, 신수진, 황성운, 유병채, 최재혁, 왜 앉아서 공연을 보고 있어요, 무관중 녹화인데? 아니, 이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하라고 하십니까?

여기 기관장님들도 나와 계시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일부러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공연을 보고 있는데 여사가 들어온 것도 몰랐습니다, 사회자도 몰랐습니다, 총괄하는 PD도 몰랐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몰랐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자기들 정치적 진출을 위해서 자기들이 황제관람을 만들어 놓고, 행사를 치러 놓고 황제관람 아니다…… 국회의원들을 기망하는 겁니까, 국회를 기망합니까? 지금 국민을 기망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영부인도 안 오는데 보고받고 왜 현장에 계셨냐고요. 현장에 계신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KTV 공연에 왜 와 있어요? 말해 보세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우선은 행사 준비를 하면서 국악 명인들이 오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임오경 위원** 잠깐요, 국악 명인들이 KTV 녹화방송에만 왔나요? 역대 국악 명인들이 공연할 때마다 한 번도 얼굴 한 번 안 비쳤습니다. 제가 국악진흥법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그분들의 피눈물 나는 눈물까지 제가 직접 지켜봤습니다. 국악인을 위하려면 그렇게 돋는 것 아닙니다. 왜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알리바이를 알리바이로 만들어서 왜 이렇게 질질 끄느냐고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황제관람이 잘못된 용어입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절대, 황제관람은 절대 아니고요.

**○임오경 위원** 아니, 영부인도 안 오는데 원탁 테이블이 왜 필요하고 꽃장식이 왜 필요합니까? 의전 15명 왜 필요합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의전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테이블에서는 제가 아까 사진에 나온 것처럼…… 국악인들, 출연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임오경 위원** 마지막 질의할게요. 그리고 답변을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KTV 출입기자 없어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대신 배포도 해 줘요. 장관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유병채 실장이 합니다. 그리고 거짓, 위증으로 드러났어요. 사과하고 해프닝으로 났어요. 김건희 황제관람 보도한 JTBC를 향해서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시 민형사 조치를 하겠다고 보도자료 배포도 합니다. 그리고 KTV는 어제 황제관람 보도 JTBC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 청구까지 해요. 이게 지금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이것 지금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자료 요청을 위해서…… 무관중이라고 했어요. 영부인 참여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JTBC 방송 후에 영부인, 격려차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을 했어요. 영부인이 어디 동네 아줌마입니까? 장 보러 시장바구니 하나 들고 동네에 장 보러 나가는 그런 분이세요? 대한민국 순위 영순위입니다, 서열 영순위. 영부인이 이동을 하는데 연락, 콘택트가 안 됐다? 아니, 하종대 원장은 영부인이 들어와서 앉을 때 알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우리보고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착도 저희 비서관실에서는 5시 반에 했고요, 녹화가 6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행사장에 진짜 안 오신다고 말씀이 있으셨던, 그러니까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 비서관님께서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냥 가자고 말씀하셨던 가지고, 솔직히 가서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오셔 가지고 끝나고 나서 격려하고 그리고 바로 가셨습니다.

○ **임오경 위원**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자격 없어요. 영부인이 늦게나마 격려차 온다고 했을 때 연락망이, 연락 네트워크가 안 됐다라는 것은 자격 박탈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국악인들 빼놓고 다 사퇴하세요. 어디서 지금 국회의원들을 기망하고 거짓말을 만들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며칠째입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요, 진짜.

---

○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 **이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이오?

○ **이기현 위원** 예.

○ **위원장 전재수** 예.

○ **이기현 위원** 증인 신청 1명 요청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경사 앞에 대형서점이 한강 작가 수상의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제보가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10일 당일 도매에서도 가장 큰손인 교보문고가 지역 서점들이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자사의 유통서비스 주문을 막아 버렸습니다. 한강 작가의 책을 사기 위해서 교보문고가 인산인해를 이룰 때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역 서점들은 순차적으로 차익이 온다는 그 말만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보문고는 지역 서점들에게 15일부터 1종당 10부로 제한해서 주문이 가능하다고 약속했지만 17일 오늘 현재까지 교보문고로부터 책을 받은 지역 서점은 단 1곳도 없습니다. 다른 도매서점들이 15일부터 정상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교보문고는 지역서점에 책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사 이익만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역서점들에게 책을 공급하지 않는 부당거래행위, 갑질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회에서 진상 규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일 종합국감 자리에 김상훈 교보문고 오프라인부문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꼭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김상훈 대표에 대해서 종감 증인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전재수** 이기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상 국정감사 증인은 7일 전에 송달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종합국정감사가 24일이거든요. 오늘 날짜가 18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송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해 주시고 추후에 문체부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교보문고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필요하다면 문체부 차원의 협안질의가 있거나 그때 별도로 증인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상 이것은 사실 일주일 전에 송달이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현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증인 채택 요구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지금 문체부 직원들 나와 있으니까요 자료제출 요구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오늘 문체부에서 뒤에 국장님들, 기획관님들 와 계시지요?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민형배 위원** 예, 송달이 안 된다고 해도 자신이 나오겠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문체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좀……

**○위원장 전재수** 여야 사이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신 관계로 보충질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면 순서에 따라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정용석 사장 나와 주십시오.

짧게 답하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에 답으로 원래 행사가 취소되었고 여사가 저녁도 먹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앞서 두세 차례 통화 누구와 했고 누가 공연계획 지시했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공연계획은 KTV에서 계획을 우선 해 가지고 제가……

**○김재원 위원** 그 통화를 누구랑 했냐고요, 처음에 KTV랑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공연 할 거라고 누가 말해 줬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비서관님이 아무튼 검토하라고 지시하셔 가지고……

**○김재원 위원** 비서관님이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김재원 위원** 최재혁 씨 처음 만난 게 언제입니까? 빨리 답하십시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마 관저 현장 방문할 때 만난.....

○ 김재원 위원 현장 방문은 언제입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미팅하고 나서 다음.....

○ 김재원 위원 미팅이 언제입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까 말씀하셨는데 18일이라고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 김재원 위원 아까 저한테는 19일이라고 했어요.

19일 날 그러면 누구 만났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혁 기획관을 만난 것 같습니다.

○ 김재원 위원 누구 있었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무도 없었습니다.

○ 김재원 위원 최재혁 기획관만 있었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김재원 위원 9월 21일 행사 관련 회의차 용산 대통령실 갔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는 못 만났습니다, 그때는.

○ 김재원 위원 못 만났어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김재원 위원 9월 21일 행사 관련 회의차 용산 대통령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것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못 만났습니다.

○ 김재원 위원 갔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최재혁 비서관은 못 만났습니다.

○ 김재원 위원 10월 13일 대통령실 행사 관련 업무 회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13일 날요?

○ 김재원 위원 예.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안 했는데요, 13일 날.

○ 김재원 위원 행사 관련 업무 회의 안 했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김재원 위원 10월 18일 업무 협의로 최재혁, 조대익, 박종현 등과 만난 적 있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최재혁 비서관은 만난 적이 없고요. 그때 그냥 18일이라고 그렇게 말씀.....

○ 김재원 위원 최재혁 비서관 언제 만났습니까? 최재혁 비서관이 아니라 방송기획관, 언제 만났습니까, 그러면?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정확하게 그 회의를 한 다음에 어디서 하는지를 확인하려 갔을 때.....

○ 김재원 위원 회의 정확히 며칠입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회의 아까 정정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8일인지 19일인지 제가 명확하게는 알지 못해 가지고요.

○김재원 위원 그다음에 관저 방문 언제입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다음으로 그냥 기억이 됩니다.

○김재원 위원 그다음으로 기억이 돼요?

10월 27일 날 최재혁 방송기획관과 행사 보고 위해서 만났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최재혁 비서관하고는 만난 기억이, 기획관하고 제가 만난 적이 없는데요?

○김재원 위원 이후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는 비서관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김재원 위원 10월 24일 날 사장 뭐 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요?

PPT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사장, 박종현 PD하고 관계자들 24일 청와대 관저에서 함께 현장 둘러보면서 행사준비 미팅 했잖아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게 그러면 24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관저를 간 게……

○김재원 위원 왜 말을 바꿉니까? 기억 안 난다고, 안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김재원 위원 이날 만난 사람들 이름 다 대세요. 사장과 함께 간 또 다른 직원 누구입니까? KTV 관계자, 용역회사 직원 성명, 신분 다 밝히시고 미팅에 참석한 문체부 직원 누구입니까? 얘기하십시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문체부 직원은 없었고요.

○김재원 위원 용역회사 직원 누구입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마 전체 행사기획을 총감독했던 박종현 감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위원 또 다른 직원은 누구입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사장과 함께 간 또 다른 직원 없다고요, 여기 사진에 있는데? 옆에 사람이 더 있잖아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 앞에 있는 분은 청와대 시설관리과의 직원인 걸로 지금……

○김재원 위원 그래요? 계속 거짓말하시면 나중에 벌받습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정말입니다.

○김재원 위원 역사에 죄짓지 마십시오, 진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10월 24일 날 청와대 관저에 국악 공연행사 관계자들하고 현장 미팅했으니까, 사진 보니까 기억나시지요?

PPT 다음 것 한번 주십시오.

부산엑스포 유치전 때문에 만난 거라 김건희 굿즈까지 아주 알차게 휴대폰에다 붙이고 다니셨더라고요. 잘 알아봤습니다.

이날 관저 실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관저……

○김재원 위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관저 실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왜 들어갔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혹시라도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

○김재원 위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날 만찬 준비했잖아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러니까 만찬은……

○김재원 위원 만찬 준비 점검까지 했습니다. 거짓말 계속 하실 거예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거짓말은 아닙니다.

○김재원 위원 아니라고요? 나중에 제가 증명합니다. 저는 증거로만 얘기합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만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김재원 위원 김건희 여사 참석을 전제로 회의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런 건 아닙니다.

○김재원 위원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만찬 테이블에 화분과 그림까지 배치하자는 논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 당시에는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하시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러 들어갔던 겁니다.

○김재원 위원 행사 자체가 취소됐고 저녁 만찬도 안 드시고 갔다라고 아까 분명히 임오경 위원님 질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10월 24일인데 이게 31일 날 하는 행사 참석을 전제로 했다고요?

제가 팩트 말씀드릴까요? 저번 질의 안 보셨어요? 10월 7일 날 이미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해서 행사는 취소된 상태였고 그다음에 무관중 공연으로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다 안 외우고 오신 거지요? 못 외운 거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니, 저희한테는……

○김재원 위원 계속 거짓말하지 마시고 제대로 얘기하십시오.

참석 전제로 회의했잖아요. 만찬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러니까 검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원 위원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를 왜 저한테 물어봐요? 보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때, KTV 하종대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KTV 쪽에서는 대통령 내외분이나 아니면 여사님이든 초대를 하시는 걸 계속 원하셔 가지고……

○김재원 위원 하종대 전 원장은 얘기했어요, 이미 그때는 취소된 시점이라서 무관중 공연으로 하기로 했었다고. 그래서 여사에 관한 검토를 할 필요 자체가 없었다, 안 오실 거였는데 갑자기 등장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거짓말하세요? 왜 거짓말하세요? 왜

입도 안 맞추고 나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일정에 대해서는……

○ **김재원 위원** 사진과 증거로 얘기를 하는데도 왜 그러세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희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 **김재원 위원** 비서실에서 그걸 왜 준비합니까? 여사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안 간다고 아까 했잖아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최종적으로는 다 취소가 된 겁니다.

○ **김재원 위원** 최종적으로 취소가 돼요? 10월 24일 날이고 10월 31일 공연인데? 그 전에 이미 취소됐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전재수** 김재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님, 오늘 증인은 아니시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그런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지켜보면서, 증인은 아니지만 피감기관입니다. 그렇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적어도 국감장에 이렇게 배석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할 거라는 것 뻔히 알고 있고 또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메모도 해 오시고,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정리를 잘 해 오셔 가지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대략 그냥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증인 채택을 해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위원장 전재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원 위원** 예술인복지재단의 정철 직무대리님 나와 주십시오.

예술활동증명사업 있지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예.

○ **조계원 위원**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데 받을 수 있는 예술인 복지 내역을 보면 예술인 패스 이용, 창작 준비금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지원 등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예술인복지법이 지난 23년 8월 8일 날 개정이 되었지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 정철** 예, 그렇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래서 이 개정을 통해서 지역문화재단 기관까지 지정, 분산 운영하고 있지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 정철** 예.

○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의원실에서 이 실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상 유명무실인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된 거지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 정철** 광역문화재단 10개 단체가 협력형 단체로 지정이 됐고요. 현재 저희가 광역문화재단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하고 의견수렴을 거쳤고요. 거기서 실제적으로 지금 행정심의의 기본요건 정도를 지역에서는 수행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사실 본격적인 심의를 구체적으로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 **조계원 위원** 왜 못 하고 있는 거지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 정철** 지역에서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은 예산을 좀 반영해서 전담 직원이 투입이 되고 했을 때 같이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가 모아졌고요. 저희가 예산 반영을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계원 위원** 지금 보면 지역문화재단 현황도 17개 지역 중에서 10개에 불과하고 오히려 5개 기관은 운영을 중단했고요. 신청조차 하지 않은 곳이 2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중앙에서 신청받고 평가하는 겁니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 정철** 지금 서울하고 경기가 원래 이번 협력단체로 참여를 안 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기관은 좀 준비, 유예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후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조계원 위원** 어쨌든 하루가 다급하게 문화예술인들은 이런 예술활동증명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심사가 자체됨으로 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크게 불편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와서……

그 심사가 대면 심사까지 하는 겁니까, 온라인에서 다 평가가 끝나는 겁니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 정철** 예술활동증명은 온라인 심사로 끝나고요. 1차는 행정심의하고 2차는 정성심의로 심의위원들이 있고요.

○ **조계원 위원** 면접 절차는 없는 건가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 정철** 예, 그렇습니다.

○ **조계원 위원** 증빙만 되면 된다 이거지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 정철** 예, 예술활동을 증빙하는 겁니다.

○ **조계원 위원** 시간을 좀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종감 때까지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 정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계원 위원** 다음에 다시 정병국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이상철 대표가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지금까지는 큰 하자 없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런데 지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지금 화면이 좀 늦게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것 먼저 묻겠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 소문을 아까 들었다고 했잖아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조계원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강하게, 저희가 듣기로는 아까 이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질책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이 회원이 2000명이다 보니까 제 지인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골프장을 다녀와서 이런저런 얘기, 골프장의 현황, 그래서 골프장이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어떤 분은……

○**조계원 위원** 아니 질책한,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상철 대표가 소문을, 뉴서울CC 대표가……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대통령하고 친해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것 진짜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업무보고로 왔을 때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게끔 하느냐 해 가지고 강하게 질책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도 세게 질책도 안 하셨군요.

그리고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필리핀 아칸토스 호텔 대표 이력과 경영 사실, 제출 서류 따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오전 질의에서는 확인 안 했다고 분명히……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니요, 구두상으로 확인을 했고요 유선상으로도 확인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가 폐업을 해 가지고 더 이상 확인이 안 됐고요. 다만 사장에 응모를 했을 때 경력증명서를 꼭 필히 첨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경력증명서는 필수지요. 그게 조항에 없다고 해서 면피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아까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뉴서울CC의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전반적인 만족도는 2022년에 비해서 1.6점이 마이너스, 하락이 되고 있고요.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기관 전체 품질 요인의 수준 현황도 모든 지표상에서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프린트, 코스 관리 등등 다 하락이 되고 있고요. 어느 하나 좋아진 게 없는 걸로 나오고요, 평가에서.

다음에 수입·지출 현황 한번 보시지요.

내장객 수도 2019년부터 계속 증가해 왔는데 유일하게 2023년부터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기금이관도 원래 2023년에는 32억 5000만 원에서 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어요. 아까 5억 늘었다 그랬는데 실제 결과는 오히려 감소했더라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이게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 자료를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 2022년도에는……

○**조계원 위원** 지금 이 자료는요 뉴서울CC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수입금 중에서 경비

덜고 저희에게 문예진흥기금으로 낸 액수를 보면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25억 씩 내던 걸 30억을 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용도변경을 하면서 49억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지금 골프장 개선하는 데……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그건 2022년에 32억 5000만 원 낸 게 최고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경영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고 뉴서울CC에서 특별회원 소각 대금을 적립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이 적립하는 금액이 2021년에는 37억 6100만 원이었는데 2022년에 그게 24억 7900만 원으로 삭감되고 2023년에 16억 9200만 원으로 삭감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8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니까 그 차액만큼의……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니요, 2022년도의 총매출액이 346억 7000만 원이고요. 23년도의 총매출액이 353억 7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문예진흥기금으로 가져온 것이 2022년에는 25억이고요. 2023년에는 30억.

○조계원 위원 32억 5000만 원.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30억 가져왔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보전금은 30억씩 해서 적립을 해 왔던 겁니다.

○조계원 위원 그 자료 관계는 나중에 다 확인 한번 해 보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고객만족도는 잘 아시겠지만 골프장이 1년 만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조계원 위원 아까하고 말이 달라지는 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니,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조계원 위원 아까는 분명히 과거보다 더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호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경영 상태 좋아졌다’, 내장객 수도 감소하고 기금이관액도 감소가 됐는데 그렇게 표현했고요. ‘기금이관 금액이 30억 원, 5억이 더 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28억 원 낸 거예요. 그리고 직전 사장이 여러 가지 문제로 형사상 구속되고 이것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구속됐다는 건 제가 잘못 표현한 거고요.

○조계원 위원 왜 그것 거짓말하셨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조계원 위원 아니,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왜 구속된 것으로 직전 사장……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니, 그것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예, 그건 확실하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대로 제도적인 허점들이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공고에……

딱 1분만, 그냥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대표이사 공모에 자격 기준을 명확화해서 이 문제를, 채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력증명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필수조건으로 명시해야 되겠지요?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것은……

○ **조계원 위원** 당연한 일인데도 그걸 평계로 대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니, 그것 지금까지 관례상 그래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걸 관례라고 평계 대지 마시고요. 자격 없는 사람을 대표로 임명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러니까 지금 규정상에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조계원 위원** 아니, 경력증명서가……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니요, 규정상에……

○ **조계원 위원**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도 그걸 규정에 안 나와 있다는 평계를 대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니, 평계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 왔던 규정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저는 선정을 했었던 거고요.

○ **조계원 위원** 그러면 규정에 문제없으니까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얘기……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계원 위원** 예. 하여튼 이상철 대표와 같은 자격 없는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더 이상은 내려올 수 없도록 이번에 앞서 얘기됐던 제도적 허점들도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알겠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리고 위증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단 시정을 한 거지요?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시정했습니다.

○ **조계원 위원** 예, 그것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욱 위원** 민속박물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속박물관 기관의 임무가 민속문화를 전승하고 세계인들에게 이걸 주로 알리고 좀 적극적으로 저희의 K-컬처라고 그럽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알리는 부분이겠지요.

○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예, 그렇습니다.

○ **정연욱 위원** 아무래도 한국민속을 내국인보다는 외국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좀 국격을 높이는, 여러 가지 국위 선양 이런 데 기여하는 것이 아마 기관의 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예, 두 목적을 다 충실히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연욱 위원** 먼저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2019년도 관람 인원 도표입니다. 이게 내국인들은 아마 팔십…… 숫자가 좀 그런데 이게 아마 주로 경복궁에 오면서 같이 민속박물관을 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예, 그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정연욱 위원 아무래도 경복궁의 입지가 더 알려져 있으니까 경복궁을 보면서 민속박물관을 같이 보는, 그래서 외국인이 더 많은 인원이, 경복궁보다 실제로 민속박물관을 찾는 외국인이 숫자상으로 더 많은 것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저 문화에 좀 보고 싶었던 대목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드는 거지요?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연욱 위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외국인과 내국인의 이런 차이들이 그동안 코로나가 있습니다.

파주관이 지금 분관 개념으로 되어 있는, 개방형 수장고로……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분관이 아니고 개방형 수장고로, 저희가 외부 수장고 개념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일단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 개념인데……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저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아시겠지요?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예, 무슨 지적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관은 실제로 작년에 130만 명이 관람했었는데 그 가운데 외국인이 47만 명이었거든요. 국내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가장 높은 박물관입니다, 저희는.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외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그 만큼 이 민속박물관에 거는 외국인들의 관심이나 호기심이 크다는 것이고, 실제로 코로나 때 잠시 주춤하다가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상당히 급증하는 수치로 들어선 것 맞지요?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예.

○정연욱 위원 그런데 문제는 2030년까지 이것 전부 다 세종시로 모든 걸 옮기게 되어 있지요?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예, 31년까지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예.

○정연욱 위원 문제는 지금 파주를 제가 예로 든 거지만 꼭 파주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현재 수치상으로 보는 파주 개방형 수장고의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왜 저렇게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걸 보신다면 이게 2031년에 세종시로 옮겼을 때…… 생각이 있으십니까, 대책이?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사실 저희 민속박물관은 1946년에 개관한 민족박물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후로 80년간 수도권에서 활동했던 박물관입니다. 이 박

물관이 세종시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정연욱 위원 그래서 지금, PPT 다시 한번 보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잘 안 나오는 모양인데, 세종시에 우리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자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세종시에 있는 산림박물관 관람인원 통계, 130만 명이 방문을 하는데 내국인입니다. 외국인은 183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동안 1년이 아니고 7년간 통계입니다. 7년간 183명이 온 겁니다. 그다음에 세종시 영평사 템플스테이는 262명, 세종에 머문 CC가 156명입니다.

이게 단순히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국가계획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지만 민속박물관이라는 당초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기관의 비전이나 기관이 왜 존립해야 되고, 기관이 목표로 하는 게 외국인들에게 K-컬처의 본류를 좀 알리고 시작하는 취지라면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싶은 거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시대사적인 대의에 비추어서 세종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남부권에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아무래도 외국인 관람객 까지를 큰 시야로 두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건물 하나 옮기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외국인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관심을 끌게, 박물관에 끌어들일 수 있느냐는, 흡인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이거지요.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에는 국립박물관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만 가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계획에 의해서 국립디자인박물관 또 국립건축박물관 또 문화유산디지털센터 등등의 제반, 박물관 단지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건물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외국인들이 진짜 자기 사재를 털어서라도,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날아올 수 있을 만큼 뭔가를 흡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적극적으로 있지 않아야 되나, 그걸 준비하라는 취지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연욱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정용석 대표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지난 국감 때는 KTV의 이은우 원장 그다음에 이성구 기획관이 와서 10일 날까지, 사진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들은 김건희 여사가 온지 몰랐다고 대답하다가 20일 날 사진 공개된 뒤에 알게 됐다 얘기했는데 사진이 나오면 진술이 바뀝니다. 지금 정 사장님도 아까 18일 날 한 번 봤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재원 위원님 질의 보니까 24일 날 그 업체 직원들하고 같이 관저 답사까지 다 했더군요. 맞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 이기현 위원 사진 나오면 말이 바뀝니다. 한 번 봤다는 분이 지금 두 번째 본 거고요.

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정용석 대통령실 문화 선임행정관, KTV 보고받은 후에 만찬 준비, 관저 내부 답사까지 다 했어요. 이 일정 보면, 저희들이 확보한 것 보면 6시에 공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간담회, 식사, 공연 다 있었어요. 4시 30분부터 6시 20분까지 110분간 청와대 관저로 기명돼 있습니다. 일정표 보면 ‘영접, 인사말씀, 식사 및 환담, 이동, 공연 관람, 출연진 격려, 환송’, 이 사안에 제가 주목하는 건 중간에 보면 ‘(국정과제 56)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다각적 지원과 전통문화 세계화’ 이것 관련돼서 맨 밑에 보면 메시지안이 나옵니다. 메시지안, ‘국악 등 전통문화공연 기회 확대를 통해 국악 진흥 활성화 도모’ 이런 표현을 기획사에서 씁니까? 기획사에서 여사님 메시지안까지 준비합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땡 처리했습니다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그 부인 그다음에 아까 문제 됐던 홍성일 지엔씨미디어 대표 등 10명의 초청 대상자 이름과 연락처가 다 돼 있고 공연 출연자들 돼 있습니다. 뒤에 보면, 세 번째 페이지 보면 그날 6만 원짜리 도시락 어떻게 할 건지까지 다 기재돼 있어요.

이런 사진이 나오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 나오니까 또 말을 바꾸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서 제가 종감 때 못 부르더라도 본인, 사장님 꼭 증인으로 채택해서 다음에 현안질의나 청문회에서 부르겠습니다. KTV 그날 행사에 참석했던, 아까 본인이 부인한 홍성일 대표 등 그 자리에서 보신 분들 다 이름 기억해 보세요. 지금 몇 명이 안 돼요. 본인이 물랐다면 말이 안 됩니다, 행사에.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 이기현 위원 들어가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장형준 예술의……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님 뒤에 계시지요?

마이크 좀……

PPT 좀 띄워 주십시오.

문체부에서 함께누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문화예술사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올해 예산 291억 원이고요. 문화부가 장애인문화예술원에 사업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3년에 262억이었다가 24년에 291억, 예산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장예총이라고 하지요. 그 회원단체들에게 11년째 비공모로, 지정사업으로 독식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산 보시면 전체 예산 11년 동안 1857억 중에 지정사업으로 470억 그다음에 그 470억 중에 장예총 및 그 7개 회원단체에 352억이 공모도 통하지 않고 지정사업으로 11년째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이게 장예총 소속의 7개 단체들이 쓴 돈의 내역입니다, 11년 동안.

공모사업 한번 띄워 보시지요.

공모사업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신청이 1000건이 넘고요 경쟁률도 거의 5 대 1, 4.3 대 1 정도가 되고요 예산은 4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11년 동안 7개의 단체는 지정사업으로 인해서 장애인문화예술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나머지 수많은 단체들은 저렇게 1000개 이상의 단체들이, 신청이 올해만 해도 1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중에 4.3 대 1 정도의 경쟁을 뚫고 45억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 주십시오.

대표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대표로 계실 때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문화플러스서울이라는 매체에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은 그냥 기존의 특정 단체들이 예산을 나눠 가지고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김형희 예.

○이기현 위원 다음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이런 지적은 굳이 원장님뿐만 아니라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도 저런 표현을 하셨고요 김형희 장애인표현예술연대 대표님도 이런 지적들을 수차례 공개된 토론회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이 행사를 한 단체 중에 빛소리친구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시지요.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요 좀 더 주시지요.

19년도 11월 14일 동대문 DDP에서 장애인창작아트페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 단체 중의 하나가. 그때 예술감독이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였습니다. 이때 검찰총장은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런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빛소리친구들 조직위원회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강신업, 이분이 무슨 사랑이었지요, 전사랑이었나요, 김건희 팬클럽 회장. 김량영 코바나컨텐츠 전무, 저 사진에 나오는 분이지요, 예전에 봉하에도 가셔서. 그다음에 이기정 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요새 칠상시, 십상시에 항상 이름 빼지지 않는 분들이 이 빛소리친구들 조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장예총이 청와대가 개방된 이후에 3년째 단독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관람은 한번도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행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매년 한 번씩 청와대를 빌려서 전시를 하고 있는 곳도 이곳밖에는 없습니다. 이 장예총의 배은주 대표는 인터뷰에서 청와대 특별전을 제안해서 내가 따냈다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장애인 행사 관련돼서 참석한 행사사진입니다. 저런 장애인문화 행사 지원하는 것 대단히 훌륭하고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정 단체, 특정인에 대한 일방적 지원은 많은 기타의 장애인단체, 문화예술인단체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장애인 예산, 문화예술단체, 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고요. 타 부처 예산들이 삭감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했지만 이것이 11년째 지정된 단체에게, 지정된 사업자한테, 일곱 곳의 장예총으로 표현되는 이 단체들에 집중돼서 공모도 없이 심사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원되는 건 기타 1000개가 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늘구멍 뚫기처럼 어렵게 들어가서 1000개 단체 중에 200여 개 선정되고 45억 나눠 가지는 겁니다.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김형희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신은향 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제가 지적한 내용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작년 국감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지요? 그때 문체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시지요? 장애인단체에서, 장예총에서 낸 보도자료 거의 카피하시다시피 해서 지적한 현역 의원 망신 주는 보도자료 문체부 이름으로 냈어요. 기억나시지요? 제가 했는데 ‘이기현 나쁜 놈이다’, 보도자료 문체부 이름으로 한번 내시렵니까? 어떻게 1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종감 전까지 어떻게 하실지 문체부에서 입장 내서 가져다 주세요.

나머지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고맙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한글박물관 관장님 좀……

관장님, 한글박물관이 2014년도에 개관을 했지요?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개관했는데 한 1년 반 만에, 2016년에 증축계획을 세웠고 2017년에 증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0월 증축, 지금 완료가 됐나요?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시작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시작했습니까?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진종오 위원 그런데 자꾸 증축하는 이유가 뭔가요?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처음에 박물관 건립할 때 당시 당초 문체부에서 요청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과 작은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다행히 저희 직원분들하고 역대 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특히 교육 파트 쪽의, 교육 분야 쪽의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일단 추가적인 증액은, 증축은 안 되기 때문에 4층에 있는 옥외 유휴공간을 일단 실내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증축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증축했을 때도 교육공간, 전시공간 부족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별관 건립을 추진할 정도였는데 문제점은 이미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지금도 증축이 끝나도 아마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진작에 반영을 했으면 또다시 공사할 이유는 없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저희가 그런 실기를 했다는 점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기재부하고 여타 부처하고 협의를 안 했던 건 아닌데 협의 과정에서 아마 긴축재정 기조도 있고 해서 계속 막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노력이 부족했던 건 인정합니다.

○ **진종오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국립중앙박물관 산하 박물관을 보면 교육공간이 10% 그리고 사무연구공간은 9%인데 우리 한글박물관은 교육공간이 4% 그리고 사무공간이 3%밖에 안 됩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게 보면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 그리고 외부에서도 그런 지적들을 하고 계십니다.

○ **진종오 위원** 설계가 잘못된 걸 지적하고 계시고요?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수요에 비해서 공간 구성이 좀 맞지 않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산하 박물관 중에 최근 20년 동안 리모델링을 한, 공사 진행한 경우도 없다고 하는데 공사한 이후로 휴관을 한 박물관은 46건 중에 3건 있고 이 3건 모두 2개월 이하로 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박물관이 다른 박물관보다 증축공사를 자주 하고 그다음에 길게 휴관을 하는 이유 말씀해 주세요.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두 번에 걸친 증축공사고 이번에 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공사 규모가, 다른 박물관하고 비교를 산술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크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되면 물론 한계가 뚜렷합니다마는 상당한 기간 동안은 교육 수요 등등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주어진 형편 속에서는 최선의 결정을 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이번에는 확실히 하시는 것 맞으시지요?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적어도, 가장 이상적인 건 물론 대규모 증축을 하는 것인데 그게 허락이 되지 않을 바에야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책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러면 이 공사기간 동안 휴관하게 되지 않습니까?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 **진종오 위원** 휴관하게 되면 이제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교육은 또 불가능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은 있으십니까?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지적하신 것처럼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본관이 워낙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글문화 홍보의 하나의 중심지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올해 24년 한 해 동안, 10개월 동안 내년도에 본관 운영을 못 하는 걸 전제하에 주로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외부에 나가서 전시와 교육 사업 하는 것들을 많이 좀 해 봤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나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의 그러한 사업들을 할 예정이고요. 이미 한글박물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전시와 온라인 교육이, 아직은 충분히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진종오 위원** 관장님 말씀처럼, 말씀 그대로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현대미술관장님은 앞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민속박물관장님은 앞쪽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예식 공간 대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예식이라 해서 결혼식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일단은 요즘에 청년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결혼식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결혼식 자체도 회피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정부가 공공예식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정말로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립민속박물관도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해서 지난 8월부터 운영업체를 공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진종오 위원** 응찰된 것 한 건도 없지요?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응찰이 안 돼서 저희는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지금 보면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식사가 불가능하지요?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주차장도 없고?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주차장은 아예 외부에다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적지 내에 소재하다 보니까……

○**진종오 위원** 그리고 또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하객수가 50명, 맞습니까?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맞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관장님, 만일 관장님의 가족이 결혼한다면 거기서 시키겠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두 분 관장님 둘 다 동시 질문,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저희 민속박물관에는……

○**진종오 위원** 좀 고민되시지요? 저 같아도 솔직히 이런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입찰도 안 되는 이유가 누가 들어도 딱히 베니핏이 없고. 물론 민속박물관, 현대미술관 의미는 좋지만 하객들이 안 오는 상황에서는 결혼식 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현대미술관 관장님, 여기 또한 2차까지 위탁업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3차 공고 예정이신 거지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글쎄, 그건 저희가 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 과천관은 그걸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 대책을 마련해서 본 의원실에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두 관장님, 두 분께 질문드리겠고요.

이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업 초기에 분명히 알고 계셨는지 한 분씩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사업 초기에 저도 설명을 들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해 왔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취지가 굉장히 좋고 지금 상황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또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립현대미술관에 지금 20대 관객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렇지요?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위원님께서 벌써 말씀하셨듯이 주차 공간이나 음식 준비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과연 예식의 과정을 어떻게 다�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래서 방법이나 해결방안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좀 더 매력적인 요소를 공모 안에 집어넣어서 응찰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사업 취지 자체는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하객을 생각 못 한 사업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 예, 감사합니다.

○ 진종오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위원 김영수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럼 보이시지요?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김영수 예.

○ 양문석 위원 참담하지요, 그렇지요?

한중일 공동특별전, 동아시아 칠기 특별전을 개최한 게 7월 10일이에요. 그렇지요?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김영수 예, 최근에 개최했습니다.

○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6월 19일 날……

계속 띄워 보세요.

저거 화학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국립중앙박물관행정운영단장 김영수** 제가 듣기로는 보존부에서 이제 깨끗하게 복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 **양문석 위원** 결례로 닦았어요?

○ **국립중앙박물관행정운영단장 김영수** 어떤 방법으로 닦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거라서요.

○ **양문석 위원** 담당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보존 직원이?

○ **국립중앙박물관행정운영단장 김영수** 보존부에 1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여 명이 학예사, 학예연구관이고 연구원들도 또 있습니다.

○ **양문석 위원** 관련 학예사 1명……

○ **국립중앙박물관행정운영단장 김영수** 연구원 1명, 저 분야에요.

○ **양문석 위원** 정확하게 2024년 9월 현재 관련 학예사 1명 그다음에 공무직 1명입니다. 2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존처리하는 월 횟수가 2점 정도 겨우겨우 보존처리합니다. 그런데 무려 7점을 이분들이 불과 며칠 만에 짹 다 보존처리를 해 버려요. 가능해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궁금하시면 제가……

○ **양문석 위원** 아니요, 잠깐만 관장님 계셔 보세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죄송합니다.

○ **양문석 위원** 행정운영단장한테 지금……

○ **국립중앙박물관행정운영단장 김영수** 이게 제 소관이…… 보존부가 학예실에 있어서요, 위원님.

○ **양문석 위원** 그러면 관장님 대답해 보세요.

위에서 낚서나 이런 산성물질들, 화학액체들이 흘러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성분 조사해 보셨어요? 어떤 액체의 화공약품에 오염됐는지 성분 조사해 보셨어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제가 그때는 아니었지만 보고받은 바를 가지고 아는 수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받기는 위에서 물이 내려왔는데 물에……

○ **양문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염물질의 성분을 분석하셨냐고요? 했느냐 안 했느냐만 해 주세요, 저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이 내용이 엄청 길어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습니다만 보통 이런 것을 처리하기 전에 학예……

○ **양문석 위원** 파악 안 됐지요? 성분 분석을 했었으면 성분 분석을 했다고 관장이나 단장한테 보고를 했겠지요. 성분 분석 안 됐어요, 저희들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런데 이 성분 분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성분 분석하라고. 안 했어요.

정말 해당 유물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조차 하지 않고 부실하게 보존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단장도 모르고 관장도 몰라요, 성분 분석을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현재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의 현실입니다. 정해진 규칙과 정해

진 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된 유물들을 지금 다루고 있고, 심지어 석재도 철재도 아닌 목재 나전칠기의 유물들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2개월 만에 유물 보존처리를 7점이나, 그것도 목재가 피해를 입었는데 7점이나 완료했다고 보고를 할 수 있어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제가 그러면 잠시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존과학실에서 파악하기에 이것은 물기하고 얼룩으로—분석까지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벽을 타고 내려온 시멘트와 관계된 얼룩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 **양문석 위원** 관장님, 관장님, 우리 집 화장실에 윗집에서 물 내려온 것 걸레로 닦는 게 국립중앙박물관의 규칙이고 법입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걸레로 닦지 않고요. 제가 다시……

○ **양문석 위원** 아니,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물질에 오염됐는지, 그 물질의 성분이 뭔지, 그 성분에 맞춘 제대로 된 다른 약품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보존을 시켰는지, 이 기본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분이 나와 가지고 하시는 이야기는 주먹구구식 구태의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처리 방식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세요, 제발.

단장, 예산 얼마입니까, 1년 예산?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김영수** 2340억입니다, 내년에.

○ **양문석 위원** 천문학적 숫자지요?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김영수** 예.

○ **양문석 위원** 그런데 그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식당 사진 올릴 수 있나요?

저 보세요. 수장고 2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수장고 2층에 식당이 있는데 저 바닥 한번 보세요. 저 배관 좀 보세요.

상식적으로 저는 수장고 2층에 오페수가 사용되는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식당이 언제든지 아래층의 유물을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예상해도 예상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다시 띄워 주세요, 그럼.

한번 보세요, 저 그림. 양쪽 그림 다 보면 썩어 문드러지는 배수관들이에요. 어떻게 수장고 위에 저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사고가 났는데, 일주일 전에 경보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합니까? 대책을 안 세웁니까? 그리고 사고를 칩니까? 그리고 심지어 사고 난 7점을 불과 2개월 만에 다 보존 완료했다고 또 허위 보고를 합니까?

그다음 날 유인촌 장관 왔었지요?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김영수** 예, 장관이 오셔서 당시 관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 **양문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기도, 믿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관장님하고 단장님이 오전 내용에서 위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증들이 있었는지 제가 잠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많은 국민들이 그냥 믿고 맡기는 그런 전문 영역의 박물관에서 관리규정 29조, 모든 출입관리 인원은 기록을 남기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일과 20일 누수탐지 업체를 출입시키고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누수 발생 사실 또한 기록해야 했으나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6월 12일 첫 번째 경보가 일어났을 때도 특기사항 미기재했고 그다음에 6월 25일, 6월 28일 이미 내부 마감재가 심각하게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바깥 사진 하나만 올려 주세요.

저 보세요. 목재와 알루미늄이 그 오염수에 저렇게 상했는데 문화재는 얼마만큼 상했겠습니까? 저 상황인데도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규정도 위반했고 그리고 위증도 했고 그다음에 실무진들이 일절 사건을 덮었던 것, 이거 하나하나 고발 들어가면요 정말 위로부터 아래까지 줄줄이 고발조치 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이 문제를 국회에서 짚는 것 아니잖아요? 국정감사는 지금 잘못했으면 다음에는 잘하자 이 이야기잖아요?

제가 요구 한번 해 볼게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한마디도 국민들에게 밝힌 적도 없고 사과한 적도 없고 재발방지조치에 대한 입장을 천명한 적도 없어요.

관장님, 대국민 사과하셔야 되고요,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도 구체적으로 내놔야 되겠지요?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저하고 끝까지 한번 또 진실게임 해 보시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이번에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 없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화시키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국민 사과.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양문석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대국민 사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파악하지 마세요. 제가 다 파악해 가지고 지금 다 가르쳐 줬는데……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대국민 사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한번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공개적으로 발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관장께 묻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장애예술인 특별전 행사 사진입니다. 발달장애 예술인이 함께했고요. 요요마 토크콘서트, 시각장애인 전문 연주단 한빛예술단 창립 등 기념음악회에 방문했던 김건희 여사 사진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장애인 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15일이 무슨 날이었나요? 흰지팡이의 날입니다. 이건 어떤 날인가요, 흰지팡이의 날?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죄송합니다.

○ **강유정 위원**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안전, 자립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대표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맞지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 **강유정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편하고 그리고 다정한 곳인지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어떨 것 같으세요, 관장님?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저희들은 원래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또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유정 위원** 나름대로 했다고 하시면 좀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배려하는 척만 한 것 같은데요. 국립입니다, 사립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비춰야 될 모범도 있겠지요.

18개 전시실에 9110건의 전시물품 있지요? 촉각전시물 같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물품 몇 건이에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저희들 한 1%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유정 위원** 아니, 몇 건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것 제가 보도자료 냈는데 안 보셨나요, 혹시? 제가 오늘 처음 묻는 게 아닌데…… 31건입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죄송합니다.

○ **강유정 위원** 개선 의지 있으시다면 그래도 건수 정도는 기억하셨어야지요. 점자블록 설치해서 전시물까지, 시각장애인 안내할 수 있는 점자블록 아시지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 **강유정 위원** 전시실 중에 몇 곳이나 이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정확한 개수는 모릅니다마는 거기……

○ **강유정 위원** 정확한 개수 모르시기 힘들어요. 1곳이거든요. 1곳만, 이 ‘공간 오감’이라는 곳에만 점자블록이 있어서 1곳인데 왜 기억이 힘드세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아, 제가 그것은 잠깐 착각했습니다. 지금 상설전시실만 생각하고요, 따로 장애인들을 위한 그 하나는 특수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설전시실에도 점자블록이 일부는 있다고……

○ **강유정 위원** 일부 있지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일부 있습니다.

○ **강유정 위원** 일부인데 점자블록 설치된 전시실은 1곳이잖아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그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 **강유정 위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모형이 설치된 곳이 있지요? 18개 중에서 몇 개

정도 점자 안내도가 이 중에 있나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설치모형이 있는 곳이 18개인데 그러면 점자 안내도는 제 생각에도 이게 기본적으로 18개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몇 개만 있는가요, 지금? 9개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오히려 비장애인들 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형이 18개가 있구나, 막상 장애가 있으신 분이 가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눈 가리고 아웅입니까?

영국 박물관,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이런 해외 박물관·미술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치중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관장님?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에 있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럼요.

계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즐기기도 힘들어요. 직접 가 봤거든요. 새 모양 토기 근처에 가 봤어요. 신라실이에요. 모형에 엄청 가까이 가야만 센서 스피커가 반응해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분들이 쉽겠습니까? 센서 스피커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음성도 너무 작아요.

또 금속공예실에 가서 되게 재미있는 걸 봤어요. 손잡이를 흔들어서 소리를 내면 금강령이 들리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점자 안내판에 모형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안 해 놔요. 전혀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또 화면 봐 주세요.

심지어 점자 안내도에는 ‘부처’가 ‘구처’로 되어 있고요. ‘중생’이 ‘죽생’으로, 한마디로 오문자, 비문, 오탈자도 검수가 안 된 게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버젓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결국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와서 아마 굉장한 실망감과 상처까지 얻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관람객 수가 몇 명이에요, 한 해에?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작년에 400만이었습니다.

○강유정 위원 맞습니다. 400만이 넘어요. 세계 6위예요. 그러면 그 정도 규모에 맞는, 장애인들이 느낄 수 있는…… 장애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감사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현대미술관장님, 매년 영구 작품 구매하고 계시지요? 22년, 23년, 24년 각각 구매 작품 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제가 그냥 시간관계상 빨리 대답해 드릴게요. 22년에 49건, 23년에 204건 그리고 24년에 65건 이렇게 됩니다.

국가계약법상에 구매자금 계약 체결한 다음에 대금 며칠 내에 지급해야 됩니까?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저희가 아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숫자는 없고요.

○강유정 위원 5일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아, 예.

○강유정 위원 이것 모르셔서 그랬나 보네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아닙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 강유정 위원 영구 작품 구매 시 대금 지급일자 잘 준수하고 있나요?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일부 좀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 강유정 위원 이것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 강유정 위원 22년에 48건 위반, 그러니까 49건 구매하셨어요. 그런데 48건을 위배한 거니까 퍼센티지로 98%예요. 23년에는 134건 위반, 퍼센티지로 66%, 24년에 또 65건 중에 62건, 95%가 위반입니다. 혹시 준수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세요?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약간의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작가들과 유족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유정 위원 이걸 관행이라고 말씀하시면 미지급된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몇 년 동안?

그리고 물품구매 계약하실 때 양식 어떤 것 사용하세요?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저희가 그냥……

○ 강유정 위원 일반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입니다.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일반 물품구매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 강유정 위원 문제는 미술작품도 이걸로 구매하시지요?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 강유정 위원 미술작품도 이걸로 구매하세요. 문제없습니까?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문제없었습니다.

○ 강유정 위원 잘 모르시나 보군요?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전 문제없었습니다.

○ 강유정 위원 일단 미술작품은 일반 물품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술성 말하는 게 아니라 특수성이 있는데 요즘 가장 시끄러운 미술계 논란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위작이에요. 위작 여부가 혹시 뒤늦게라도 밝혀진다거나 하면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관장님, 이것 아까 일반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로 해도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그런데 위작으로 드러나면 이걸로는 전혀 해결이 안 나는데요?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저희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에 진품 확인서 절차가 있습니다. 반드시 진품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 강유정 위원 그러면 물품구매를 일반으로 하고 계약서에 없어도 되네요. 왜냐하면……

다른 곳을 좀 볼게요. 국립미술관이나 박물관 전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고궁박물관 계약서 양식 좀 보시지요. 좀 벤치마킹하셨으면 하는데 여기에는 판매한 문화유산이 도굴, 장물 등 불법일 경우 대금 환수 및 처벌 감수라는 조항을 넣어 놨어요, 계약서에. 과정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미술과 위작, 그렇게 자유롭지 않잖아요, 굉장히 위험도 높고. 그런데 왜 이것을 그냥 일반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만 쓰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건 모두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내 줬으면 합니다.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신속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수 위원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 또 강유정 위원님께서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 말씀을 주셨는데 이기현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약간 사실과 다른 게 있어서 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특별전은 대회장을 맡아서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쇄된 공간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린 것이 아니고 청와대 개방 이후에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측면에서 첫 전시회로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예술인 50명의 작품을 거기에서 전시했고 일반인들한테 다 개방이 됐던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게 장애예술인들 또 가족들한테 희망을 줬던 그런 행사고 그 이후에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찾는 그런 사례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강유정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해외의 유수 박물관에 시각장애인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박물관 소장품들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런 특별전시실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면 그림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손으로 촉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또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앞으로 우리도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도서관장님, 황금숙 관장님, 지금 전국에 장애인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전국에 지금 31개 장애인도서관이 있습니다.

○ 김승수 위원 이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천적 장애인들이 많이 늘고 있고, 특히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들이 그래도 많이 좀 확충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장애인도서관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16년도에 44개였던 것이 지금 31개에서 또 1개 더 줄어서 30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장애인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 지자체의 예산 축소가 그 원인인 듯합니다.

○ 김승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보면, 제가 현황들을 보니까 그나마 지역별 장애인도서관 현황도 거의 한 대부분이, 절반 정도가 서울에 있고 나머지는 시도당 1개 정도씩, 인구가 서울보다도 많은 1000만이 넘는 경기도에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100만이 넘는 수원, 고양 이런 데는 장애인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고양 같은 데 보니까 일반 공공도서관에 그나마—제가 직접 방문해 보니까—장애인 열람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 자료는 점자 책자 그리고 굉장히 활자를 크게 한 그런 책자들 또 청각 자료 이런 것들 몇 개가 있을 뿐이다, 아직까지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마다 도서관들을 다 맡겨 두니까, 공공도서관도 그렇고 특히 이 장애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어라 그러면 이게 우선

순위에서 더 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다 장애인 전용 도서관을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공공도서관 내에서도 장애인 열람실은 대폭적으로 확충을 하고, 또 사실은 장애인 열람실을 확충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라든지 자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고가고, 미흡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예,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대체 자료 확보와 개발을 통해 가지고 확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독서 보조기기나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질적 제고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들이나 자료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황금숙** 예.

**○김승수 위원** 앞서 오전에 중앙박물관 조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최근 K-콘텐츠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주요 박물관들의 한국관 운영에 대해서 찾는 관람객들이 많이 늘고 있고 또 한국과의 교류기획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유수 박물관에서 한국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시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잘못, 왜곡되게 전시되고 있다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열린 전시회에서도 보면, 이게 꽤 유명한 사진인데 조선 말에 가슴을 드러낸 우리 여자 사진입니다. 이것은 일제가, 일본이 우리 조선 문화가 열등하고 미개하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버젓이 전시가 되어서 좀 비난을 받았고요.

호주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것을 보면 한국 전통의상이라는 것이 전혀 한국 전통의상이 아닌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중국 의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작년에 또 아시아권에 유물도 전시했었는데 전혀 사실관계와 다른 설명이 나와 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실제 유물이 없다 보니까 모조품을 해서 전시하는데 모조품 자체가 그냥 너무 조악하다는 거지요. 금관 같은 경우에는 옥이 없으니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곡옥을 만들었고.

이 반가사유상 보십시오. 우리가 진품의 반가사유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참 이게 아닌 게…… 그런 모습입니다. 청자상감운학문매병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중에서 그냥 파는 상품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유물이 도난당한 게 많아서 그게 많이 전시되는 게 좋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만큼 교류전시라든지 기획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그만큼 해외박물관에서 한국 문화유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을 전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 앞서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이건희 회장 기증품 국외순회전 해 가지고 시카고 박물관 또 국립아시아 박물관, 영국 박물관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렇게 외국 유수 박물관에서도 한국의 진짜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기획전시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획전시나 또 상설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그런 조직의 확충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지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저희들이 현재 22개국 70곳 정도의 한국실로 파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지적하신 대로 호주 전쟁기념관처럼 독자적으로 한 것 포함하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체부로부터 2년 전에 이 업무를 의뢰받았을 때 예산은 받았습니다만 사람을 받지 못한 전례를, 금방 지적하셨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 학예연구사 1명하고 공무직 1명이 수행합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직원들과 협업을 통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합니다.

앞으로 학예연구관하고 학예연구사에 대한 중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기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지금 현재 한국실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인력 지원 그리고 전시 지원, 더 나아가서 조사하는 것까지도 수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을 증원하도록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승수 위원** 하여튼 영국 박물관뿐만 아니고요 프랑스, 아시아 박물관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생각도 못 했던 조선시대 또 근대의 우리나라 문화유산, 유물들이 많이 소장돼 있고, 특히 수장고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유물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 또 보면 그런 외국의 박물관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귀중한 유물을 발견한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해외박물관과의 교류협력, MOU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전시되고 있는 유물들에 대한 연구분석뿐만 아니고 수장고에 어떻게 보면 저장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속 조속히 점검하고 검토 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새로운 귀중한 문화유산 이런 것들도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기존 인력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외국에 있는 전담 인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현진 위원** 국립오케스트라단 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반대 방향으로 좀……

2025년, 내년 9월에 영국 버밍엄의 뜻깊은 행사에 우리 오케스트라단이 초청됐지요?

○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예.

○ **배현진 위원** 어떤 행사지요?

○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영국 버밍엄 B:Music 페스티벌이라는 공연에 시즌 오프닝 공연으로 저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 B:Music 페스티벌이라는 게 어떤 위상의 공연입니까?

○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영국을 대표하는 페스티벌이기도 하고요.

또 유럽 전체에서 손꼽히는 유서 깊은 또 중요한 예술가들이 거쳐 간 그런 중요한 페스티벌입니다.

○ 배현진 위원 영국이 사실상 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준비하는 그런 음악축제지요?

○ (재)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예, 일단은 베밍엄시에서 운영하는 베밍엄심포니 홀이고요.

○ 배현진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다는 그런 위상의 페스티벌이지요?

○ (재)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예, 그렇습니다.

○ 배현진 위원 여기에 우리 국립오케스트라가 초대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 한강 씨가 노벨상도 수상을 했는데 점점 우리 문학과 음악, 발레 등 여러 클래식 분야의 K-콘텐츠가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또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오프닝 공연 하기로 하셨다던데 맞습니까?

○ (재)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예, 오프닝에 초대를 받았고. 사실은 주로 저희가 과거에는 대관을 해서 공연을 하거나 대사관, 문화관 초청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던 해외공연이 진짜 출연료를 받고 대관 없이 공연에 초청받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아마 B:Music에서 온 초대장인데 맞습니까, 보시는 게?

○ (재)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예, 맞습니다.

○ 배현진 위원 여기 이 초대장을 가져오면 문체부가 해외투어 나가는 데 예산 주겠다라고 한 적이 혹시 있었나요?

○ (재)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 (재)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예, 제가 2년 전부터……

○ 배현진 위원 그냥 오케스트라 자체로 베밍엄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을 해 오셨던 건가요?

○ (재)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예.

○ 배현진 위원 얼마나 하셨지요?

○ (재)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제 기억으로는 2년 전부터 독일의 현대미술가 아힘 프라이어 그다음에 영국에서 저희가 조나단 베만 이런 사람들과 또 중국의 작곡가 칭, 이 사람이 한국을 위한 서곡을 작곡해 주겠다 해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3국, 독일·영국·한국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가 얘기되고 있었습니다.

○ 배현진 위원 실제 우리 국립오케스트라단이 전 세계 외교적으로 어떤 결연을 통해서 대형 공연을 성사시키고 이런 유서 깊은 축제에 초대가 된 거네요. 대단한 성과네요. 맞습니까?

○ (재)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예, 그렇습니다.

○ 배현진 위원 본 위원이 오케스트라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단장님께, 대표께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아힘 프라이어라는 세계적인 예술가, 연출가가

이 공연의 무대를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특히 그 점을 높이 사서 이 오프닝 공연을 하게 된 게 맞습니까?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최정숙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만 사실 유럽시장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데뷔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런 3국의 대형 프로젝트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고 다른 나라까지도 지금 줄을 서서 이 공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배현진 위원 독일에서, 아힘 프라이어 재단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정부에서 오케스트라의 해외순방, 해외공연 예산을 적정히 배정해 주지 못해서 혹시 공연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나는 이 공연을 위해 무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못 오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를 독일의 아힘 프라이어 재단에서 직접 해 왔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최정숙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 그 걱정은 그쪽과 계속 교류하면서 같이 걱정했던 부분이긴 한데 직접 연락을 하신 줄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

○배현진 위원 잠깐 기다리시고요.

뒤에 예술정책관님 계시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일반 국민들께서는 앞에 국립 이렇게 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대우받으면서, 음악계든 무용이든 어디든 간에 가장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아마 단원들이 있을 거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제가 아는 바에 한해서는 우리 국립오케스트라단만 하더라도 서울시향보다도 급여나 처우가 굉장히 힘들고, 또한 여기 발레단장님도 계시고 오페라단장님도 계시고 대표도 계시고 하시지만 이분들이 오블리라는 반주 공연을 해야 하는데다 본인들의 공연도 해야 하고, 국립이라는 그 입지 때문에 전국의 지방 소도시까지도 공연을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우에 비해서 애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체부가 이런 좋은 기회, 우리나라 국립오케스트라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있다면 정말 같이 박수 쳐 주고 조금 더 힘을 내서 더 멋지게 하라고 좀 등을 떠밀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올해 신청한 예산이 오히려 삭감됐을까요? 답변이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은향 전반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아마 경영평가 부분도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해외 심포니, 내년 해외공연 예산이 6.7억 원 배정되어져 있는데……

○배현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은향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좀 채울 수 있도록 또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경영평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경영 부문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실제 그 부문을 고쳐 나가고 고생하는 단원들, 열악한 처우에서 고생하는 단원들이나 아니면 특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나갈 때는 그것을 북돋아 주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데에서 좀 예산을 삭감하신 게 아닌가…… 이것 못 가면, 영국이라는 베밍엄 클래식 축제에 우리나라가 초대됐다고

했는데 영국에도 망신, 독일에도 망신, 정말 큰 문제거든요. 이것 좀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못 간다고 한 적이 없고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배현진 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산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국립오케스트라단과 함께 이 방안을 좀 면밀히 고민해 주셨으면, 정책관님께서 전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언을 들었어요. 전 정부에 임명됐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처우를 잘못, 오히려 입지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 공연 나가는 것도 이미 단장님 임기 끝난 뒤 아닙니까?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더 적극적으로 문체부와 협의하셔서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선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반드시 제대로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문체부 예술정책관님, 조금 전에 배현진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 K-콘텐츠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국립오케스트라 내년 공연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또 제2, 제3의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을 만들어 내는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좀 쟁겨 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30초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 계신지 확인 좀 할게요.

국립정동극장 극장장님 오셨지요?

○국립정동극장대표이사 정성숙 예.

○민형배 위원 서울예술단 단장님도 오셨지요?

○서울예술단장겸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예.

○민형배 위원 국립극단 단장님 오셨지요?

○국립극단장겸예술감독 박정희 예.

○민형배 위원 국립발레단도 오셨지요?

○국립발레단장겸예술감독 강수진 예.

○민형배 위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님.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예.

- **민형배 위원** 국립현대무용단 단장님.
- **국립현대무용단장겸예술감독 김성용** 예.
- **민형배 위원** 국립합창단 단장님. 국립합창단 단장님 못 오셨습니까?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국립합창단에서는? 아무도 안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피감기관이……
- **민형배 위원** 피감기관이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지금 여기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 **민형배 위원** 오늘 대상이 아니었다고요?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 **민형배 위원** 피감기관은 맞는데 오늘 참석 대상이 아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지금 정책관님이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 **민형배 위원** 국립오페라단 단장님.
- **국립오페라단장겸예술감독 최상호** 예.
- **민형배 위원** 제가 이 8곳 국립예술단체들 대상으로 지금부터 좀 하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빠진 곳은 여야 간사 간 합의하에 빠졌습니다.
- **민형배 위원** 아, 그래서 빠진 겁니까?
- **임오경 위원**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되어서 뺐어요.
- **민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정성숙 대표님 저것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이런 거 보면 다들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6번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저것 보이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 **국립정동극장대표이사 정성숙** 예.

○ **민형배 위원** 혹시 문체부나 정부로부터 이 6번 국정과제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해 달라 이런 권유나 독려 요청받아 보신 분, 지금 7개 기관 계시는데 받아 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왜 이것 제대로 안 하느냐 이런 지적받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정과제가 형식만 있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정성숙 대표님 한번 보실게요.

국립정동극장 2023년 주요 성과, 일곱 번째 보면 지역공연 추진을 통한 우수공연 유통 활성화, 2023년에 정동극장에서 416회 공연을 했는데 그중의 95%가 서울 공연입니다. 저 7번 성과는 무슨 뜻입니까? 주요 성과는 아니네요?

- **국립정동극장대표이사 정성숙** 그것은요, 위원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것은 올해……

○ **민형배 위원** 아니, 23년 거라니까요, 23년.

○ **국립정동극장대표이사 정성숙** 23년 21회 저희가 지역공연을 했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95%가 서울 공연이라고요, 국민의 반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서울이 한 25%쯤 되잖아요. 그런데 공연은 95%를 서울에서 하셨다고요. 그래서 저 7번 성과를 하나도 성과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232회를 공연하셨는데 그중에 1건 빼놓고 231건이 서울 공연이에요, 99.6%. 그러니까 8개 국립예술단체 중에서 서울 집중도가 1위입니다. 이유가 됩니까?

○국립정동극장대표이사 정성숙 저희는……

○민형배 위원 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국립정동극장대표이사 정성숙 위원님……

○민형배 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습니까? 뭐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국립정동극장대표이사 정성숙 올해 저희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민형배 위원 잠깐만요.

서울예술단 류상록 단장님, 직무대리하고 계신데 감독도 같이 맡고 계시지요?

○서울예술단장겸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예.

○민형배 위원 서울예술단 비전도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띄워 주시지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95.6%가 서울 공연입니다.

그리고 국립극단 단장님, 여기도 93.4%가 서울 공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국립오페라단 단장님, 왜 국립오페라단은 상대적으로 지역 공연이 많습니까? 이유가 됩니까?

○국립오페라단장겸예술감독 최상호 저희들은 역시 국정과제에 충실하고자 했고 또 지역에서 우리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 전막 공연에 대한 요청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정성숙 대표님과 다른 분들 지금 하시는 말씀 들으셨지요? 상대적으로 어떤 곳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어떤 곳은 아예 못 해요. 이건 너무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서울 밖의 다른 국민들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이렇게 못 가져도 됩니까, 그것도 국립인데?

신은향 국장님, 제가요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이 8개뿐만 아니라 전체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전재수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봐 보세요. 그랬더니 서울이 86.3%고 광주는 0.5%예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광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저희가 지역에서의 공연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아마 기존에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전의 지역 공연들이 좀 많이 취소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지역 공연하는 예산을 특별히 편성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올해도 99.6%가 서울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뭔가 국립예술단체들의 운영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비수도권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이것 국감 종감 때까지 개선책 마련해서 꼭 보고해 주십시오. 아셨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알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김성희 관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어제 제가 ACC에 똑같이 질문했는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미술관입니까, 아닙니까?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미술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민형배 위원** 아니지요?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 **민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체계 조직정비 연구용역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보고서에 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미술관이라고 해 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립미술관 호남권에는 없는 거 맞지요?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없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리고 서울관 수장률이 아까도 좀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120%나 되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 **민형배 위원** 호남 쪽에도, 특히 광주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시대요. 아니, 이것도 왜 이렇게 지역 불균형이 심합니까?

약속해 주세요. ACC는 미술관 아니다 이것 문체부에 제대로 전달해 주시고요. 광주관 필요하다 이거 문체부에 말씀해 주세요, 꼭이오.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정병국 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원칙을 정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사리 반환은?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 **민형배 위원** 그런데요 2010년 1월 25일 문화재청에 보면, 보스턴 미술관 사리구 반환 관련 문화재청의 입장 보도자료를 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리만 반환하는 것에 문화재청이 동의할 경우에 정부의 불법 문화재 반환 원칙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원칙이 확실히 있었는데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그다음에 이게 자꾸…… 아니, 오랫동안 저희 선배로서 의정활동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면 그렇게 정책기조 자체나 원칙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저 절대로 그런 관점에서……

○ **민형배 위원** 그런데 당시에, 그다음에 장관 하셨잖아요?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제 입장도 장관의 입장이었고, 그 이전에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갔을 때에도 저는 그것을 단계적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밟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 **민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온 나라가 김건희 여사 감싸는 데 정신이 없어 가지고 계속 정책기조를

놓쳐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저는……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오늘 보고하신 보고서 3쪽 보면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올해 무려 502억이나 돼요.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형배 위원** 오늘 보고서 3쪽 보시면 예산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위원장대리 임오경**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말씀을 해 주십시오.

308억이나 늘었어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사업 집행을 못 해서 반납하는 돈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그 수입이 올해 엄청나게 늘었다고요.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이거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엄청난 예산…… 그래서 올해 자체 수입이 44%나 늘었어요, 작년보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보조사업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해서는 거예요. 이거 지역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더라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확인해서 종감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민형배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이것은 위원장님 아니고 중앙박물관인데요.

해외에 전시하잖아요. 특히 이건희 씨 기증품 전시회, 이거 하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아직은 하지 않고 내년에 합니다만……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요?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일단 작품의 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기증 문화가 보편화돼 있다, 외국에서는 지금 한국의 기증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교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엄청난 예산이 들 텐데 국내에서도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해 주는 게 우선이지 해외부터 갈 필요가 있나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충분히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잠시 사실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두 번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청주, 대구 그 다음에 제주……

○ **민형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해외까지 가서 이렇게, 그것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국내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할 만큼 여유가 있으시냐고 묻는 거예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국내에서 반응도 좋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100만이 넘게 나왔고요. 그 열기를 해외까지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저희는 있다고 판단을 해서 3개 기관하고 됐습니다.

○ **민형배 위원** 잘하셔야 될 겁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 **위원장대리 임오경**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욱 위원** 한글박물관장님 다시 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의 친절한 설명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조금 앞으로 나와서 해 주시지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10월에 프랑스에서 김정숙 여사가 이 옷을 입고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박수현 위원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이후에 이 옷을 선물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뒤에 그동안 죽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2019년도 2월 19일 날 샤텔의 수석디자이너인 칼 라거펠트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사 이후 넉 달 만에 사망을 하는 거지요, 이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21년도에 들어서 김정숙 여사의 사치품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 사진 좀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인터넷에서 많이 돌았던 사진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인 2021년도 5월 달에 청와대가 문체부에 기증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라라는 지시를 내리고 2021년 12월 달에 이 옷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정말로 이 옷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 김정숙 여사께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돌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미 디자이너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가 새로운 옷을 디자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옷이 들어와서 2022년 3월 달에 인천공항에 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3월 달에 청와대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샤텔에서 여사님께 의복을 대여해 줬다. 대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했고 그 후에 샤텔 측에서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해 전시하고 있다’, 그다음 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샤텔에 돌려줬더니 한글로 디자인되어 의미가 크니 한국에 기증하겠다고 해서 한국에 기증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누가 들어도 같은 옷이 돌아왔다 는 뜻으로 들리지요?

○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신동욱 위원** 그런데 인천공항에 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취재진이 인천공항을

갔습니다. 당시 제가 재직하던 언론사에서도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 옷이 아닌 것 같다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그러자 지금 이런 대책을 논하는 단톡방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증 의사를 밝힌 주체는 샤넬인 것을 문체부가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예정이신가요?’ 이렇게 누군가가 물으니까 ‘문화비서관실에서 판단했다고 하면 되지요. 문체부는 제2부속실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조금 전에 언급한 양이네스라는 분이 ‘샤넬 본사에서 샤넬코리아 측으로 공문을 보낼 것 같아서 그걸 기다리는 게 어떠신지요?’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보면 2부속실의 선임행정관 남인희가 ‘기자들이 샤넬에게 물어보는 질문과 오늘 중으로 답변할 예정인 대답, 재킷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재킷이 기증됐는지’, 이 내용은 저희가 당시에 샤넬 측에 질문했던 답과 동일한 답변입니다.

결국 이 정황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순수하게 한글박물관으로 기증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제 판단은 칼 라거펠트가 사망한 지 2년 뒤에 원작자가 작품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아무런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적 필요에 따라서 황급히 조작된 모작을 지금 한글박물관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과연 박물관에 있을 만한 물건인지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오늘 문체부 문화정책관 나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이해돈 예, 나왔습니다.

○신동욱 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고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이해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보고받거나 조사한 적은 없고요. 당시 그 수중이, 그러니까 기증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어떤 건가요? 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이해돈 당시 청와대에서……

○신동욱 위원 왜 2년이나 지난 뒤에 기증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이해돈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셨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이해돈 예.

○신동욱 위원 그러나 어쨌든 2019년에 칼 라거펠트가 사망하고 2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기증을 받은 건 사실이지요, 박물관장님?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혹시 조금 전에 박수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희 한글박물관이나 제가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당시에 저희 한글박물관 측에, 21년도 5월에 처음 기증 의사를 사실 문체부가 청와대 경유해서 한글박물관에 알려 주셨을 때 이것은 같은 디자이너의 예술작품은 맞지만 여사께서 입었던 그 작품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현재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게 있고요.

○**신동욱 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 당시 아마 청와대에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으면 그 뒤에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이 과연 우리 박물관에서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제가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셔서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국립중앙박물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형을 들어 보이며)

지금 제 책상 앞에 있는 것 보이시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박수현 위원**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 1971년 7월 7일에, 그 당시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그랬지요, 그때는?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박수현 위원** 5, 6호 분 배수로 공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된 무령왕릉에서 나온 석수, 이것은 아마 그 무덤을 지키는 진묘수일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석수 또 진묘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마 한수 역사박물관장님이 공주국립박물관장으로 재직하실 시에 이것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오늘 이것 관련해서 좀 하나 여쭤보겠는데 중앙박물관장님, 박물관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조사해 본 통계들이 있을 텐데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박물관 방문 이런 것들이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에 있을 겁니다, 통계를 찾아보시면.

그런데 국립공주박물관에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왕릉원이 1호분부터 6호분까지 대개 도굴된 상태로 있었는데 무령왕릉 이 무덤만 완전히 아무것도 도굴되지 않은 처녀분의 상태로, 부장품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무려 108종 4600여 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고 이 중에 국보만 해도 모두 17점이나 되는 것인지요. 그래서 대개 국립공주박물관에는 그렇게 귀중한 이런 유물들이 지금 보관이 되어 있고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박물관을 찾는 이유, 자녀 교육이라고 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녀 교육의 장일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리고 이 무령왕릉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어떤 고분 중에 유일하게 피장자의 신분과 축조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국보 지석이 발견되어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자료들이 되는 것인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 박수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자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장이고 자료인데……

지금 중앙박물관장님께서 관리하시는 국립박물관이 전국에 몇 개 있지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저희 관 포함해서 14개, 지방은 13개가 있습니다.

○ 박수현 위원 13개,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아까 박물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어린이 박물관을 현재의 규모보다 3배 면적의 넓이로 2028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 박수현 위원 그런데 이 산하에 있는 13개 국립박물관 중에서 어린이박물관이 없는 박물관은 국립공주박물관과 국립진주박물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맞습니다.

○ 박수현 위원 그런데 국립진주박물관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 박수현 위원 그래서 이 박물관 이전과 함께 동남권 최대의 규모로 박물관을 신축할 것이고 거기에 어린이박물관을 그렇게 할 것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13개의 지방 국립박물관 중에 어린이박물관이 없는 곳은 이렇게 귀중한, 국보 17점을 포함해서 4900여 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고 짜장자의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삼국시대의 고분으로서 역사 교육의 아주 산실이자 가장 귀중한 장인 국립공주박물관에만 어린이박물관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맞지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맞습니다.

○ 박수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떤 계획이나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현재 저희들은 공주박물관만, 지금 진주 보물들은 장기적으로 없어서,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주박물관이 늦어졌나 하면 다른 박물관과 다르게 공주는 현재 가장 유명한 개방형 수장고를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오픈했습니다. 그것 오픈하면서 어린이박물관…… 만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없는 최신 시설을 갖춘 수장고를 갖추는 과정에서 어린이박물관을 좀 더 다음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이지 어린이박물관을 만들지 않을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박수현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 박수현 위원 문체부에서는 이 문제를 오늘 출석하신 정책관님 중에 어느, 지역문화정책관님 소관입니까, 강대금 정책관님?

○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예.

○ 박수현 위원 문체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저희도 어린이박물관 구축하는 데 전혀 이의가 없고요. 박물관과 협의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공주, 부여 그다음에 익산은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입니다. 그에

걸맞는 박물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어린이박물관, 전국에서 국립공주박물관만 있는 이 어린이박물관을 문체부와 협의해서 조속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본 위원과 그리고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과 함께, 국회와 상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임오경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왕에 말씀드리는 중에 하나 더 합시다. 이게 무슨 제 지역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국립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세계문화유산 도시에 걸맞은 박물관의 위상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립부여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은 박물관장이 지금 4급 부서로 되어 있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거기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호남권에 2곳, 광주·전주 그다음에……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에 맞는 박물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박물관장님의 위치도, 위상도 좀 커지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박물관의 위상을 갖는 것이 맞겠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맞습니다.

○박수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공주와 부여는 전통도 가장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아까도 말씀하신 국보·보물의 숫자도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고 또 최근에 관람객 증가율이 가장 빠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여, 공주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한수 관장님께 질의할게요.

한미동맹 70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가 예측할 수 없는 행사입니까, 예측이 안 되는 행사입니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한미동맹 행사……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행사입니까? 한미동맹 70주년과 6·25 행사가 예측이 안 되는 행사입니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지요? 한미동맹 70주년인 건 예산 기안 올릴 때 몇 주년인지 알 수 있고 6·25는 매년 6월에 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지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고의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이것 몇 건이나 수의계약하셨지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당시 급하게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준비하는 바람에 여러 개의 수의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23건 중에 21건이 수의 계약이에요, 여러 개가 아니라. 그러면 거의 100%를 다 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시 공간의 경우 역사박물관 건물 내 앞마당 1층 로비, 3층 다목적홀로 쪼개기 계약을 해 계약금을 낸줬습니다. 영상 제작도 한 기업에 4건을 쪼개기 수의 계약합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네요.

제가 결산 때 이 문제 지적해서 온 답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25 행사는 연초 사업계획에 없었고 한미동맹 70주년 관련해서는 작은 전시 2개만 사업계획에 있었다. 특정 기념일에 대통령 참석 행사를 개최하는 사례는 전무했다', 저한테 이렇게 답변이 와요.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원래 기획에 없는 행사가 긴급하게 생겨난 것은 갑자기 대통령 부부가 온다고 했기 때문 맞지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5월 달에 총리님께서 오셔서 한미 동맹 관련 행사를 대규모로 확대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던 중 또 6월 달에 6·25 행사를 대통령 행사로 하게 돼서 더 행사가 추가됐다고 들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지금은 말씀에, 답변에 준비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긴급하게 생겨난 건 맞잖아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 **임오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긴급하게 갑자기 생겨나니까 이러한 전시는 대통령 부부만을 위한 전례 없는 황제전시다 이렇게들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긴급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또 이게 대통령 부부를 위한 행사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6월 25일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 원래 없을 행사였는데 대통령 부부가 온다니까 급조한 것 인정하셨고요. 전시 규모 확대와 6·25 행사 추가가 5월에 결정됐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 5월에 박물관에 6·25 때 대통령 부부가 간다고 통보한 겁니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사실 제가 6월 17일에 부임했기 때문에 5월 상황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갔을 때는 다양한 행사를 급하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 **임오경 위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누가 통보를 해 줬다고 그런 기록도 안 남겨 있었습니까? 보고도 안 받았어요? 안 받습니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그렇지는 않고 당시는……

○ **임오경 위원** 보고받았지요? 누가 통보해 줬어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당시에는 본부……

○ **임오경 위원** 제가 모르고 있으면서 물어볼 것 같습니까? 알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누가 통보해 줬어요, 이것 행사? 전달받으셨지요? 안 받으셨어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제가 갔을 때는 당시 문체부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관련된 사항들을 다 전달받았습니다.

○ **임오경 위원** 아, 그러셨어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 **임오경 위원** 최재혁 비서관 아니었나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아니요 전혀, 기억……

○ **임오경 위원** 기억이 안 난다? 보고도 안 받았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기억도 안 나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든 업무는……

○ **임오경 위원**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누구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받습니까? 이 절차, 과정 참 우습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겠어요, 얘기 들어 보면. 어떻게 대통령 내외가 행사에 참석한다는데 이런 과정, 절차가 이렇게 무시됩니까? 그냥 모른다고 하면 다 답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특별전을 준비한 박물관도 문제입니다. 이미 준비한 행사가 있었는데 대통령 부부가 온다고 무리해서 행사를 개최하려다 보니까 쪼개기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참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오히려 더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유도 없이 이 절차 다 무시해 가면서, 수의계약해 가면서 이 행사를 거대하게 준비해야 되는…… 오히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야당 위원이지만 진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대통령 부부가 온다고 하셔도 특별전 급조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 예산에 따라 미리 준비한 특별전만 보라고 해 주십시오. 힘드시잖아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기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대통령 내외분들 때깔리 해야 됩니까? 본업에 충실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열린 상임위에서 송현 녹지광장에서 당시 불교계에서 반대하던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철회하고 국민들이 온전히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 **임오경 위원** 이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상세히는 모릅니다.

○ **임오경 위원** 최근에 서울시는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정원형 공원인 송현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문체부는 이 부지에 이건희 기증관을 세워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강대금 국장님은 이 진행 과정 알고 계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예, 알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저는 이것을 단순히 시민 문화공간으로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이건희 기증관 외에도 간송·호암·호림미술관 같은 국내 유명 사립미술관 또는 좋은 콘텐츠를 지녔으나 재정이 어려운 사립미술관 등을 국가가 일부 매입을 해서 이전하도록 하여서 국립 근대미술관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송현동 그 부지는 이건희 기증관만 저희 소유

고요, 거기에만 권한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문체부에서도 정부에서 이렇게 쪼개기로 작게 작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루브르·대영·바티칸 미술관 등 세계 4대 미술관의 경우 소장품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번에 다 전시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디지털 라이징해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올해 프랑스를 다녀왔는데, 루브르 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줄 서서 들어가는, 행렬에 의해서 들어가는 걸 봤을 때, 또 전시품이 너무 많아서 한번에 전시를 할 수 없어서 이 디지털 라이징을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적인 개입이나 하려고 하고……

이러한 송현 문화공간을 우리가 오히려 여기다, 정부가 더 개입해서 매입해서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여기다 더, 전 세계 4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미술관 하나를 건립하는 게 어려울까요? 제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제가 제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의 전적인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이 송현동 부지가 단순히 기증관만 들어설 게 아니라 국가 문화시설로 개발해서……

마지막 1분만……

국립현대미술관, 공예박물관, 삼청동, 인사동 등과 맞물려서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키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전 세계 130개 도시들이 고유의 디자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것 모르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예, 모릅니다.

**○임오경 위원** 디자인 역량은 소프트파워가 되어 국가의 산업발전, 경제발전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130개 도시가 고유의 디자인 페스티벌들을 개최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미술 소양이 강해지면 창작 역량도 개발되고 또한 국가적 디자인 역량도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예.

**○임오경 위원** 김성희 관장님 동의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동의합니다.

**○임오경 위원** 따라서 저는 관장님도 그렇고 문체부도 그렇고 송현동 부지를 단순히 미술품만 관람하는 공간이 아니라 진짜 문화예술의 상징적 공간, 미술과 디자인의 창작 역량을 배양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도 해 주시고 또 문체부에서는 추진도 해 주시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대금 국장님, 그렇게 장관님에게 제안하겠습니까? 서울시와 협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서울시하고 일단 기본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협의 잘해 보셔서 대한민국의, 진짜 우리 미술계의, 문화계의 랜드마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탄생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역으로 최적합한 공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례하지만, 저는 전문인은 아니지만 제가 미술 쪽으로 또 건축 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안을 한번 정책적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정용석 사장, 24일 만찬장소 논의 있었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있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31일 만찬 있었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없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없었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없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24일 여사 참석을 전제로 만찬 논의했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대통령 내외, 그날 모여서 참석을 다 전제로 해 가지고 논의한 걸로 생각됩니다.

○**김재원 위원** 기물 배치,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 필요 등 이런 내용도 논의에 있었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우선 그런 것들도 함께 논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10월 27일 날 대통령실에서 최재혁 방송기획관과 국악공연 일정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한 사실 있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것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10월 27일 날 대통령실에서 최재혁 방송기획관과 국악공연 일정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희는 없습니다. 문체비서관실은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김건희 여사에게 국악공연 관련 행사 보고한 적 정말 없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는 그때 다녀와서 비서관님께 보고드렸지 따로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신수진 문화체육비서관한테는 보고했다는 것인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 당시 비서관님은 황성운 비서관님이셨습니다.

○**김재원 위원** 황성운 비서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김재원 위원** 신수진 비서관한테는 보고 안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비서관님이라는 분은 신수진 비서관입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니, 황성운 비서관이고요.
- **김재원 위원** 황성운 비서관입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때 당시는 신수진 비서관은 선임행정관이었습니다.
- **김재원 위원** 국악공연 행사를 보고한 최초 시점이 언제입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국악공연,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18일 날 그 전에 KTV에서 제안이 와 가지고 와서 검토의견을, 취지나 이런 것들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24일 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저를 가서 현장 답사를 하고 나서……
- **김재원 위원** 24일 날 KTV 관계자와 용역회사 직원의 성명과 신분 밝혀 주십시오, 만난 사람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알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24일 날 누구누구 만났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최재혁 기획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종현 무대감독이 있었습니다.
- **김재원 위원** 또 다른 사람 없었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같이 오신 한 분, 무대를 만드시는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시설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 **김재원 위원** 안내해 주시는 분 계셨고?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김재원 위원** 아까는 혼자만 갔었다면서요, 최재혁 기획관하고?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까 박종현 무대감독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안내하신 분은 또 청와대 쪽 사람이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재원 위원** 최재혁 방송기획관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처음 만난 건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 **김재원 위원** 누가 소개시켜 줬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전화가 그때, 조대익 PD 18일 날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4일 날 만나는 것은 그때 가서 만났습니다.
- **김재원 위원** 조대익 PD는 누가 소개시켜 줬길래 전화번호를 서로 알았습니까? 조대익 PD가 올 거란 것 어떻게 알았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희가 KTV 쪽에서 그런 행사가 진행된다는 것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설명을 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 **김재원 위원** KTV가 그러한 행사를 할 것이라고 보고받은 게 누구이고 누가 알려 주었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는 아마 18일 이전에, 17일이나 그때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외분 초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문체비서관실로 와서 아마 비서관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비서관님이 누구입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때 황성운 비서관입니다.
- **김재원 위원** 황성운 비서관입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맞습니다.

○ **김재원 위원** 그러면 황성운 비서관을 통해서 KTV에서 행사 문의가 올 테니 전화받고 안내를 하도록 하여라라고 그런 내용으로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27일 날 김건희 여사 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공연 건으로?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희는 처음에만 공유하고 그다음에는 따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 **김재원 위원** 안 드렸다고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 **김재원 위원** 24일 날 만찬 준비 왜 했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사절이든지 아니면 문화계 인사들이 오셨을 경우에 그 만찬에, 왜냐하면 만찬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하라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

○ **김재원 위원** 누구한테서부터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처음부터 KTV가 그렇게 기획을 아마 해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중간에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무관중으로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솔직히 저는 그때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 **김재원 위원** 무관중으로 돌리고 나서 그 이후에 24일 날 만찬 준비를 한 게 이상합니다. 왜 그게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은 무관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원장님을 통해서……

○ **김재원 위원** 만찬 준비한 케이터링 회사 어디입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주최 측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문체비서관에서 그런 것도 확인 안 해요? 그때 경호처 담당 누구입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경호도 아예 검토하지 않았었고요.

○ **김재원 위원** 의전 인력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의전 인력도 전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재원 위원** 청와대 관저 내에 대통령 부부가 오는 걸로 전제를 해서 행사를 기획하는데 그분들 신분을 다 모르고 그냥 들어오게 합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 **김재원 위원** 지금 만찬까지 다 검토를 했다면서요, 오실지도 모르니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러니까 검토는, 저희는 해야 될지 말지를……

○김재원 위원 오실지도 모르면 신분 확인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김재원 위원 그렇지 않아요? 청와대에서 오시는데, 대통령 부부가 오실지도 모르니까, 만찬 준비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다 점검을 하는데 신분 확인을 안 한다고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들어가지 말고 잠깐만 서 계시지요.

18일 날 누구 만났는지 실토했고 24일 날 관저 간 것 실토했고 누구랑 가셨는지 얘기하셨습니다. 31일 날 사진 속에 등장하시는 분들 신수진 비서관하고 그리고 같이 가셨던 행정관님들 그다음에 두 분의 문체비서관들 확인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아까 보셨던 분이 이생강 선생님, 명인께서 환복을 하시고, 아까 사진에 제가 무릎 끓고 있었을 때 도복을 입고 계신 분이 이생강 명인이신데요. 이생강 명인이 환복하시고 계셨던 사진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됩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여러 명 더 있거든요? 이생강 선생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는데 제가 사진 보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취재해서 다음 종감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들어가세요.

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님, 마이크 가지고 얘기하시지요.

전두환 휘호석, 경내 설치돼 있지요?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예, 설치돼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전두환 휘호석, 예우할 만한 가치 있는 비석입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그것은 그 가치보다는요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휘호석에 쓰인 글귀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이기현 위원 그 글귀가 전두환 씨만 썼나요?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아니요, 그건 문화예술진흥법 37조에 의한 글귀라서, 건립 때 이미 새겨져 있는 글씨였습니다.

○이기현 위원 참 제가 들어 본 논리 중에 가장 신박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반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예우가 중지된 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분 돌아가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4년 전에도 휘호석 없애야 된다는 논란이 있어서 내부에서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13명이 참석하셔서 회의를 했는데 휘호석 유지 2명, 휘호석 철거 5명, 휘호석은 유지하되 판결문을 설치하자 11명 이렇게 결정해서 4년 전에 그냥 존치한 거예요. 맞지요?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랬는데 이것도 거짓말인 게 휘호석 유지하고 옆에다 판결문 써서 붙이자라고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판결문 만들지도 않고 옆에 설치도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그렇지요.

○ 이기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 내부회의는 그냥 형식적인 회의였고 그대로 방치하신 겁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18명 중에 열세 분인데 다음 종감 때 이 열세 분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그리고 휘호석 지금 아직도 설치돼 있는데,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참기가 막힙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저게 원래 모습이고 저 밑에 전두환 휘호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텐데 나무를 심어서, 회양목이지요. 회양목을 심어서 전두환 이름만 가렸어요. 참 문화와 독재라는 것은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믿고 살고 있는데 문화의 전당에서 저런 휘호석이, 회양목에 가려진 독재자의 이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두환 휘호석이 그대로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휘호석이 그대로 있지요? 이게 전두환 휘호석인데 이게 내부에서 좀 문제가 되니까 이 휘호석을, 저 글씨를 엮어서 방치했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또 다시 전두환 이름이 들어간,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 앞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맞습니까?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맞습니다.

○ 이기현 위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두환 휘호석이 국립중앙도서관 마당에 저렇게 방치돼 있는데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이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의견 좀 들어 보고 저희는 또 관리방안을 검토해 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 이기현 위원 신은향 국장님, 강대금 국장님, 종감 때까지 문체부의 입장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예, 알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의 휘호석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 버젓이 방치돼 있다는 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줬는데 독일이 그 예였고요. 지금 저희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 후 70년이 넘게 대한민국에 친일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이 끝난, 국민들의 평가가 끝난 독재자의 휘호석이 아직 버젓하게 국립도서관 그리고 문화의 전당 앞에 방치돼 있다는 건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체부에서 종감 며칠 안 남았는데 입장 정리해서 종감 때 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전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정병국 위원장님, 또 위증한 사항이 좀 발견됐는데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정필묵 대표에 대한 이력에서 골프장 경영 경험이 많았다…… 경영 경험이 없었다고 그랬지요, 그분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니, 그 이전에. 그것은 그분만 지칭을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의 여러 사장들이 골프장 경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계원 위원** 어쨌든 직전 대표, 아까 범죄자……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건 시정을 했고요.

○**조계원 위원** 예, 그건 시정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 직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골프경력이 블루원 대표이사 그다음에 태영래저 대표, 제주 엘리시안 대표, 강촌리조트 대표, 곤지암 컨트리클럽 이렇게 경력들이 확인되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니, 그분을 지칭……

○**조계원 위원** 이 부분 시정할 의향 없으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조계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니, 그분만을 제가 지칭한 게 아니고 그 이전의 여러……

○**조계원 위원** 확인이 됐잖아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조계원 위원** 확인이 됐으니까 바로 잡으시라 이겁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니, 그분만 지칭하지 않았습니까요. 그 이전의 여러 사장들이 골프장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직전 대표에 대해서는 시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분을 지칭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이전에 많다 그랬는데, 직전 대표는 골프장 운영 경험이 있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지금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니까 그건 맞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발언했을 때는 그 이전의 여러 사장들을 얘기했던 겁니다.

○**조계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히 시정하면 될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아니, 그건 시정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지요.

○**조계원 위원**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하신다면서 경력이 없는 분들이 많다 하면서 직전, 특히 정필묵 이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경력 관련해서 다시 제가 지적을 해 주면 받아들이면 될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제 발언 취지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청년예술단원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 전공 청년 실업의 해소 그리고 고용 촉진을 위해서 2014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이 사업의 성과가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성과 외에 다른 성과가 있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이것도 고민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일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인턴십 형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연결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인턴 일자리는 되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40여 명 정도 채용되는 게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낮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채용 비율로 따지면 10%가 채 되지 않아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투여됐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 예산이 매년 다른데요, 지금……

○**조계원 위원** 지난 10년간 633억 원이 넘게 투여가 됐네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보면 일단 그래도 인턴을 한 경우에 직후에 여론은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채용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현장의 수요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단계적으로 차르고 채용을 하지 않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엄청난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사업 공연장의 입장에서는 이거 없으면 견뎌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수요자들은 국공립을 가려고 해요, 그걸 자기 스펙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국공립은 엄청나게 줄였고요 사업 위주로, 사업 공연장 중심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계원 위원** 그런데 그 업체들 제대로 확인하고 했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계속 그것은 확인하고요.

○**조계원 위원** 연수단 지원사업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도 눈에 띠는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엄격하게……

○**조계원 위원** 폐업한 업체들도 있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환수조치 절차를 저희들이 밟고 있고요.

○**조계원 위원**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그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 확인이 되고 있나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일단은 채용된 다음에 그 이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계원 위원** 비율적으로 보면 유추하기로는…… 고용이 계속됐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과학을 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또 중도 이탈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현저하게 정규직 고용이 안 되고 있는 문제를……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정규직으로 고용이 된 다음에는 저희가 돈을 대 주는 게 아니니까요.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원하잖아요, 50%, 고용이 될 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50% 하고요.

○**조계원 위원** 그런데 6개월이 너무 짧은 건 아닌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래서 그 부분도 1년 단위로 50%, 30% 이렇게 줄이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고려를 해 보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것을.

○**조계원 위원** 지금 지적한 문제와 관련된 대책들을 종감까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연합뉴스 업무보고가 종로 연합뉴스 사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번역원장님, 이번에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해외 수상뿐만 아니고 출판콘텐츠 수출을 위해서도 번역이 참 중요하다, 번역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수상 내역을 보더라도 우리가 번역을 어떻게 많이 또 잘하느냐가 결국은 수상하고 직결되는 게 바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지원된 출간 언어 수도 가장 많고 또 책 종류도 많습니다. 또 그동안 노벨상 후보로 많이 노미네이트되었던 고은 작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상을 많이 했고 또 출간 지원 언어 수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번역원에서 지원한 이외에도 민간 출판사 자체적으로 보면 번역하는 물량이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번역원에서 좀 더 역할을 하셔 가지고 민간 출판 분야하고 해외 번역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체계적인 관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미 기존에 번역돼 있던 출판물이라고 하더라도 번역 자체가 지금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좀 조잡하거나 내용이 좀 부실할 수도 있거든요. 작품성이 굉장히 인정되는 그런 작품들에 대해 가지고는 재번역하는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예.

○**김승수 위원** 특히 번역뿐만 아니고 작가들의 해외활동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해외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됐다면서요?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해외활동 지원도 삭감이 됐지요.

○**김승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시 좀 살펴 가지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의

우수한 문학작품들 또 작가들의 역량이 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번역원이지만 지금은 K-콘텐츠가 문학 분야뿐만 아니고 웹툰 또 드라마, 여러 분야로 뻗어 가고 있기 때문에, 웹툰은 일부 번역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야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학번역원장 전수용** 저희가 23년부터 교육과정에 한류콘텐츠 그런 교육을 포함시켜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교육은 올 8월부터 약간 시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김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정희 국립극단장님, 앞서 민형배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비수도권의 국립예술단 공연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국립극단도 늘고 있습니다마는 예술단 중에서는 아직까지 비수도권 공연 비율이 가장 낮은 게 지금 국립극단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국립극단장겸예술감독 박정희** 저희가 2022년부터 지역 공연 예산을 받아서 그때부터 조금씩 지방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그래도 낮은 수라도 15.3%로 올라갔고, 2023년 8.4%에서 약간 2배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더욱 더 저희가 지방 투어 공연을 더욱더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다른 예술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립극단장겸예술감독 박정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류상록 서울예술단 직무대리님, 서울예술단 홈페이지 인사말을 보면 ‘서울예술단은 국제 협작 공연을 비롯하여 미래지향적인 국제 교류를 통해 공연을 통한 K-컬처 전파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외 공연한 게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서울예술단장겸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서울예술단에서는 해외 공연 라이선스 수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예술단을 초청하는 계획은 26년 대만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실제 다른 예술단들은 그래도 조금씩은 해외 공연이 있는데 서울예술단은 최근 5년간 한 번도 없습니다, 인사말만 그렇게 해 놓고.

○**서울예술단장겸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저희가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김승수 위원** 다른 데는 언어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국립극단도 지금 해외 공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니까 2022년도에 유럽에 한 개 있거든요.

제 이야기는 국립예술단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도 필요하고 또 외국에서 K-콘텐츠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립예술단도 그래도 좀 주기적으로 한 번 이렇게, 몇 년 만에 한 번씩이라도 해외 공연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해외 공연이 없었던 예술단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예술단장겸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예술단장겸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그리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예술단에서 창작했던 작품들을 대만과 일본 쪽으로 라이선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언어로 뮤지컬 형태로 이미 일본에서는 두 번이나 공연을 했고요, 그 수익으로 매년 한 1억 정도의 라이선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수 위원** 서울예술단이 가장 다양하게 공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 공연에 가장 적합한 예술단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지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예술단장겸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예, 전통을 바탕으로 창작을 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국립중앙도서관 관장님, 저거 한번 봐 보실래요?

어떤 단체에서 청소년 유해도서를 제거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합니다. 또 충남 홍성에서도 비슷한 그런 공문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책을 없앱니다. 이게 작년 일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경기도교육청에 또 저런 공문이 옵니다, 책 폐기해 달라. 그래서 2500권을 폐기했고 그중에 다 알려진 것처럼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있었어요. 이 폐기된 도서 목록에는 해외 우수도서 선정 작품이나 위안부 관련 도서 ‘꽃할머니’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또는 세종도서로 선정된 것까지 포함됐어요.

이렇게 요구가 오면, 도서 선정 권한은 도서관의 독립적 권한이고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저기는 사실 도서관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서관 관종에 따라서 세 규정이 따로 마련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저렇게 막 무분별하게 어떤 단체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지요?

중앙도서관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중심 도서관이니까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이런 데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책들이 폐기 처분되는 일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폐기에는 또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된다 하더라도……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그 기준에 따라서 폐기해야 되는 건데……

○**민형배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예.

○**민형배 위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 아까는 제가 보조사업 예산이 좀 그렇다고……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제가 답변드릴까요?

○**민형배 위원** 아닙니다.

이번에는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이 32억 있었는데 올해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것 좀 신경 쓰셔서……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올해 정부에서 기관 간에 중복되고 그랬던 부분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위원** 어쨌든 매우 줄었고, 특히 지역의 민간 공연장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줄이니까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대폭 축소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런데 그것은 지역 문화예술재단으로 이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닙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역할 분담을 하게 됐습니다, 방향을.

○**민형배 위원** 그래서 그쪽에 관심 좀 가져 주시고……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형배 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산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고 제가 지역 출신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민형배 위원** 아까 8개 국립예술단체 분들에게 드렸던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서 예술위원회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그래서 올해 저희 예술위원회에서, 내년 예산 중 새로 편성된 사업 중에서 보면 지역예술 도약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8억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지원하는 방향이 바뀝니다.

○**민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석 사장님, 앞서 제가 여쭤던 문화재청 행사를, 원래 계획을 어디서 세웠습니까? 문화재청에는 계획보고서가 없어요. 계획을 처음에 어디서 세웠냐고요, 작년 4월 4일 상춘재 오찬 간담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는 상춘재 행사는 문화재청에서 계획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없다니까요, 계획서가. 그렇고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거 다시 챙겨 보세요, 어디서 세웠는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해돈 국장님, 이거 공정위하고 상의 좀 하셔서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이 교보문고 말씀하셨는데 서점연합회에서 지금 교보문고의 횡포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와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들 방에 다 와 있을 텐데 보니까 좀 심해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해돈 위원님, 그 업무는 아마 출판 업무를 담당하는 미디어국 소관인데요 제가 전달해서 위원님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전달하셔서 공정위하고 함께 조사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불공정한 정도가 아니라,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한강 작가의 작품을 보다 널리 읽게 해 줘야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업체들의 의무 중 하나인데 그걸 오히려 막고 자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려고 하는 정말 반문화적인 이런 행태를 보였으니까 미디어국 쪽에 말씀을 하시든, 하여튼 문체부에서 공정위하고 상의를 하셔서 교보문고 쪽의 이 부분을 꼭 조사하고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해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이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서 조금 빨리빨리……

예술의전당 사장님 나오셨지요?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예.

○신동욱 위원 좀 건설적 제안인데 파이프오르간 아시지요?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예.

○신동욱 위원 파이프오르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악기인데 없으시지요?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없지요.

○신동욱 위원 국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국내에는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희가 가진 자료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은 2019년도에 이게 노후화가 너무, 78년도에 설치가 된 것이어서 사용이 중단됐다고 그리고 롯데콘서트홀하고 부천아트센터에 있다고 그립니다.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예, 그렇지요.

○신동욱 위원 그런데 이게 세종문화회관도…… 처음에 만들 때 그 자리는 만들었는데 당시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큰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 40억 든다고 그러는데……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한 삼사십억 들지요.

○신동욱 위원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거 해결해야……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인데?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잘 안 되는 겁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이것이 예산 문제하고요 또 저희가 대관을 한 6개월 정도 멈춰야 되거든요, 홀을. 아시다시피 예술의전당은 3000회 공연과 300만 관중이 오는 그런 장소라서 6개월을, 저희가 선 대관이 나가기 때문에 이걸 미리 2년 후를 계획하고 자금이 들어가야 계속……

○신동욱 위원 그런데 6개월을 멈추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거의, 지금은 상당히 힘들지요. 그러나 리모델링이랑 겹치면 할 수 있을 수도 있지요.

○ 신동욱 위원 할 수 있다?

○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예.

○ 신동욱 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대 어쨌든 목전에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좀 앞을 내다보고 하셔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 있는 나라의 유일한 예술, 클래식 콘서트 홀에 파이프오르간이 없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저기 하시고요.

○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예, 동감합니다.

○ 신동욱 위원 중앙박물관장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좀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이 현수막 때문에 그러는데요. 물론 우리 공무직 노동자분들이 어떤 취지에서 저걸 붙이는 것인지는 제가 잘 알고 또 저기에 붙이는 것이 많은 분들이 보라고 붙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술공간은 조금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협상은 좀 하십니까? 그냥 두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기간 붙어 있는 게 많지요?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일부 노조하고 이야기가 돼서 너무 눈에 잘 띄는 것은 뒤로 물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완전히 해결을 못 봐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 신동욱 위원 지금 붙어 있는 것은 보니까 중앙박물관만 그런 게 아니고 문체부 산하 공무직 노동자, 근로자들 임금 개선 이 문제가 거의 모든 공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맞습니다.

○ 신동욱 위원 이런 부분들 문체부하고 좀 협의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노조하고 협의도 하셔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부착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 기관장분들께서 모여서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별도의 공간을 하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현 위원 한수 관장님 잠깐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독립운동의 기점과 관련해서 우리 국권이 완전히 침탈된 이후에 그 침탈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들뿐만이 아니라 국권이 완전히 침탈되기 이전이라도 침탈되어 가는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항일활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독립운동의 영역에 보고 기점을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데 이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보는 사유는 2020년 국가보훈부 자문 자료에서 잘 드러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독립운동을 하려면 대한민국이 국권을 잃은 상태여야 하는데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때는 국권 침탈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국권 침탈은 1904~1905년 러일전쟁과 1905년 을사늑약 전후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이렇게 해 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895년 국모 시해로 촉발된 을미의병은 독립운동으로 보고 그리고 그 유공자를 서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국가보훈부의 입장이 지금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1895년 을미의병 둘 다 학계가 인정하는 국권 침탈의 시기와 차이가 있겠지만 을미의병은 되고 동학농민혁명 운동은 독립운동이 안 된다라는 모순적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를 한번 보시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제1조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도 국가보훈부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지요.

또 작년 2023년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당시 인용된 등재 신청서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번 표를 봐 주세요.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3·1운동의 기원으로서의 독립운동의 성격은 물론 임시정부, 제헌헌법까지 그 정신이 계승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띄워져 있는 것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3·1운동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대표자였던 손병희를 비롯한 9명은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며 그 후예들이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동학농민군이 제기하였던 인권, 조세 문제 해결의 요구, 신분제 철폐,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이 오늘날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계승되었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져 민주공화제를 지향한 한국 민주주의가 동학농민혁명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관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이런 사건들, 자료들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시니만큼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연구용역이라도 한번 해 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아까 밝히셨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한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한국이 근대 시민 국가로 출발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 중의 하나가 동학농민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더 나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동학농민운동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 **박수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김재원 위원님.

○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KTV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문제가 이대로 국감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종대·이은우·조대익 증인 그리고 오늘 배석한 정용석 사장 등의 증언이 날짜와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일치하지도 않으며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증거로써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만찬을 기획하고 준비한 정황도 오늘 본 위원과 정용석 사장의 질의답변 중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문화비서실과 KTV는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이고 국가의 일을 돋기 위해 있는 곳이지 아무 권한이 없는 김건희 여사의 흥청이 아닙니다. 별도의 청문회가 반드시 개최되어 아직 밝혀지지 못한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수**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추후 여야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님을 비롯한 오늘 피감기관 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대안 등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이기현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 2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체육회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 종료 후 오후 5시부터 연합뉴스에 대한 비공개 업무보고가 연합뉴스 사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4시 45분에 국회 본청 국기게양대 앞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님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기관장 등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 및 국회방송 직

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5인)

강유정 김승수 김윤덕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배현진 신동욱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전재수 정연옥 조계원 진종오

○첨가 감사위원(1인)

박정하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 전완희  
입법심의관 김충섭

○피감사기관 참석자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김재홍  
행정운영단장 김영수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김희섭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장상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한수  
국립한글박물관  
관장 김일환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황금숙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김성희  
기획운영단장 박승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사무처장 송시경  
예술의전당  
사장 장형준  
경영본부장 이재석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장호  
기획경영본부장 김범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전수용  
경영기획본부장 이정근  
국립극단  
단장겸 예술감독 박정희  
국립발레단  
단장겸 예술감독 강수진  
국립오페라단  
단장겸 예술감독 최상호  
국립현대무용단  
단장겸 예술감독 김성용  
서울예술단  
단장겸 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최정숙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김대진  
사무총장 전병화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 정성숙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김형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정용석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이해돈  
예술정책관 신은향  
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